

<부록> 1.

— 2017 강릉단오제 —

행사 참가단체 현황

강릉단오제 행사 참가 단체 현황

1. 지정문화재 행사 주관 : (사)강릉단오제보존회

제례부		무격부		관노가면극부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예능보유자	조규돈	예능보유자	빈순애	예능보유자	김종균
전수교육 조교	김형각	전수교육 조교	박금천	전수교육 조교	주영건
전수교육 조교	심오섭	전수교육 조교	이순덕	전수교육 조교	안병현
이수자	김진환	이수자	사화선	이수자	권영민
이수자	조규해	이수자	신성녀	이수자	권혁시
이수자	박종승	이수자	신길자	이수자	심승호
이수자	김시원	이수자	김명대	이수자	최영선
이수자	함영호	이수자	김영준	이수자	황문수
이수자	심재홍	이수자	김운석	이수자	김문겸
이수자	임한택	이수자	김은영	이수자	김용태
이수자	함종식	이수자	설희수	이수자	김민준
이수자	전상만	이수자	김일현	이수자	최종봉
이수자	김재현	이수자	신희라	이수자	주영환
이수자	김혁기	이수자	임선미	이수자	김주백
이수자	김선하	이수자	박순여	이수자	김민수
전수생	유택환	이수자	김민석	전수생	김태기
전수생	박용덕	이수자	전성호	전수생	이동훈
전수생	최중기	전수생	황영기		
		전수생	정지용		
		전수생	이건환		
		전수생	성휘경		
		전수생	박혜미		

2. 2017 강릉단오제 공개행사 헌관 및 제집사 명단

	일시	찬인	판진설	봉향	봉로	헌폐	전폐	봉작	전작	사준	동창	서창
산신제	5.10 (10:00)		김형각	심오섭	김재현	임한택	조규해	김진환	장기영	심재홍	김혁기	전상만
성황제	5.10 (11:00)	함영호	조규해	김진환	김형각	임한택	심재홍	장기영	함종식	심오섭	전상만	김재현
봉안제	5.10 (18:00)	박종승	조규해	김진환	심재홍	임한택	김형각	전상만	장기영	심오섭	김혁기	
영신제	5.28 (18:00)	조규해	김형각	전상만	심재홍	장기영	심오섭	김진환	함종식	김혁기	박종승	함영호
조전제	5.29 (10:00)	박종승	김형각	김진환	김혁기	심재홍	유탉환	장기영	김재현	조규해	함종식	전상만
	5.30 (10:00)	함영호	조규해	김진환	유탉환	심재홍	김형각	김시원	전상만	심오섭	함종식	김재현
	5.31 (10:00)	박종승	김형각	전상만	김진환	장기영	유탉환	심오섭	김재현	조규해	심재홍	김혁기
	6.1 (10:00)	함영호	조규해	김진환	유탉환	김형각	장기영	김혁기	함종식	심오섭	김재현	김시원
	6.2 (10:00)	김형각	조규해	김진환	유탉환	심재홍	장기영	박종승	심오섭	김혁기	전상만	함종식
송신제	6.2 (18:00)	조규해	김형각	김진환	장기영	임한택	함종식	심오섭	김재현	함영호	전상만	심재홍

3. 국가(지역)무형문화재 공연단체 현황

행사명	단체명	대표자
무속악 발표회 관노가면극 공연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김종군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강릉농악보존회	정희철
강원도무형문화재 제5호	강릉학산오독떼기보존회	최종설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0호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정규민

4. 강릉단오제 체험촌 주관 단체 현황

프로그램	주관단체	대표자
수리취떡 맛보기	배다리회	전상희
단오신주 맛보기	오죽헌시립박물관	강순자
단오신주 교환처	경포회	심은자
단오차(茶) 맛보기	한송정다도회	박규자
창포물에 머리감기	강릉적십자 오죽봉사회	장임선
단오부채 그리기	단오부채연구회	최행자
오륜주머니 던지기	강릉여성포럼	조규교
단오빔 체험(한복)	강릉적십자 햇살봉사회	차정혜
단오 캐릭터 탁본하기	가톨릭 관동대 금석문화	국승호
관노탈 그리기/관노탈목걸이 만들기	적십자강릉지구협의회	최종개
단오 컬러링 엽서 만들기	고임돌 봉사단체	김선숙
단오등 만들기	강릉시청 평생학습과(문화의집)	최명길 (함정옥)
방짜 전시체험	강원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김우찬	김우찬
탐라 전승의 기예	제주예총	부재호

5. 단오제 시민 참여 행사 주관 단체 현황

단체명	행사명	단체대표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신주미 봉정행사	조규돈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사)강릉단오제보존회	신주빛기 체험행사	조규돈 김종균
(사)강릉단오제위원회 MBC강원영동 강릉불교청년회	신통대길 길놀이	조규돈 안우정 김보현
강릉시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센터발표회	김광래

6. 강릉단오제 <민속놀이> 행사 운영 단체현황

행사명	주관단체	대표자
씨름대회	강릉청년회의소	최수규
그네대회	국제로타리 3730지구 3지역 로타리클럽	윤종대
줄다리기대회	국제라이온스클럽 354-E지구8지역	최수환
투호대회	임영문화재보호회	김복년
웃놀이대회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이석창

7. 강릉단오제 경축 <문화·예술> 행사운영 단체 현황

행사명	주관단체	대표자
제24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강원일보 영동총지사	김운경
대한민국전통주선발대회	강원도민일보 영동본부	김중래
단오깃발사진전	(사)임영민속연구회	안광선
제54회 학생 미술대회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김운기
2017 강릉단오제 체험기, 독후감 대회	강릉문인협회	심은석
제50회 시조경창대회	(사)한국전통예악 총연합 강릉지부	권소희
강릉전통혼례	성균관여성유도회 강릉지부	최종오
중앙, 제일 축구정기전	중앙고총동창회	이대용
제5회 단오맞이 전국민요경창대회	(사)강원민요연구원	김선란
제25회 강릉전국사진공모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강릉지부	박옥렬
강릉단오제 다문화체험촌	강릉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최은혜

<부록> 3.

— 2017 강릉단오제 —

신주미 봉정 접수 현황

2017 강릉단오제 신주미(神酒米)봉정 접수 현황

구분	읍·면·동	2017 접수량	2016 접수량	비고
1	주 문 진 읍	346	350	
2	성 산 면	272	212	
3	왕 산 면	300	290	
4	구 정 면	236	236	
5	강 동 면	253	217	
6	옥 계 면	151	166	
7	사 천 면	300	297	
8	연 곡 면	249	226	
9	홍 제 동	278	274	
10	중 양 동	200	223	
11	옥 천 동	194	152	
12	교 1 동	155	262	
13	교 2 동	212	162	
14	포남 1 동	345	352	
15	포남 2 동	275	202	
16	초 당 동	132	116	
17	송 정 동	229	151	
18	내 곡 동	330	300	
19	강 남 동	304	300	
20	성 덕 동	300	252	
21	경 포 동	242	209	
22	칠 사 당	110	98	
23	강릉시청	161	114	
합 계		5,574세대	5,161세대	
		171가마	169가마	

<부록> 4.

— 2017 강릉단오제 —
영신행차 등포 정산 현황

구 분	2017배포	2017판매	구 분	2017배포	2017판매
주문진읍	200	21	교1동	200	171
성산면	250	140	교2동	200	122
왕산면	250	215	포남1동	350	296
구정면	150	134	포남2동	350	292
강동면	200	160	초당동	100	54
옥계면	150	100	송정동	250	216
사천면	250	228	내곡동	250	197
연곡면	100	91	강남동	350	270
홍제동	250	204	성덕동	150	81
중앙동	250	227	경포동	150	150
옥천동	100	54	강릉 문화원	250	246
소 계	배포수 : 4,750매 / 판매수 : 3,669매				
불교 청년회	900	454	위원회 사무국	350	560
소 계	배포수 : 1,250매 / 판매수 : 1,014매				
합 계	배포수 : 6,000매 / 판매수 : 4,683매				

<부록> 5.

— 2017 강릉단오제 —

홍보물 모음

2017 강릉단오제 포스터



2017 강릉단오제 리플렛 (국문)

시민참여행사 | 전통대강 길놀이 |



신동대강 길놀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정통의 열정을 주제로 강릉시 3개 읍면동과, 3개 단체 약 3,000여명이 참여하는 한국형 길놀이의 정수이다.

시민참여행사 | 단오등걸기 |



시민들은 단오등을 들고 행진하며 행렬을 따르거나 단오공원에 간다. 시민들이 소원을 기원하며 가는 단오등은 장관을 만들어야 강릉단오제의 또 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다.

공연



상공적인 문화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는 기복공연 및 국내외 초청공연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연들이 행사 기간 내내 펼쳐져 흥을 돋운다.

풍물시장



강릉단오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풍물시장이 형성된다. 맛있는 요리와 값싼 물건이 즐비한 풍물시장은 강릉단오제 난장의 중심이자 천년을 이어오게 한 핵심이 되었다.

단오체험촌

단오장에는 단오문화를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단오 체험촌에 모여 있다.

체험명	제일비	설명
주희떡 빚보기	무료	단오사람들이 직접 빚어 만든 신유와 수라떡볶이를 무료로 맛보는 체험
향토머리감기	1,000원	비밀의 술과 꿀로 고추, 약을 담아주는 향토머리에 머리를 깎아보는 체험
관노불 그리기	3,000원	관노(거만) 캐릭터를 그리고 유성잉크를 만드는 체험
관노불 만들기	5,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관노 떡볶이 만들기	2,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관노부레 그리기	3,000원	관노부레를 그려서 유성잉크를 칠하는 체험
관노부레 만들기	5,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관노 떡볶이	2,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관노 떡볶이 만들기	1,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관노 떡볶이 만들기	5,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관노 떡볶이 만들기	5,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관노 떡볶이 만들기	5,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관노 떡볶이 만들기	5,000원	단오성황의 동양인물들을 개성화한 인형을 만드는 체험

무형문화재 전시 및 시연 프로그램

프로그램	설명
관노 떡볶이	국가무형문화재 제 2호 관노 떡볶이 시연, 제 1호 관노 떡볶이 시연, 제 2호 관노 떡볶이 시연, 제 3호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관노 떡볶이 시연

민속놀이

종목	일시	장소	행사주관
배움떡볶이	5. 27(목) ~ 6. 3(토)	서동장	강릉성년회의소
그네대박	5. 27(목) ~ 6. 3(토)	그네장	곡계동파리 3기리 3기리 로타리클럽
동호대박	5. 28(일) ~ 6. 1(화)	투호장	강릉문화원 부설 강릉문화재보존회
줄다리기대박	5. 30(일)	단오실	국립국립사립연합회 35개교 강릉지구 장거리
줄다리기대박	5. 31(수)	단오실	강릉시 중앙동 중부초등학교

경축 문화 예술 행사

종목	일시	장소	행사주관
강릉단오제 경축공연	5. 27(목) ~ 6. 3(토)	원포로	시민공연단, 단오공연회
경축공연	5. 27(목)	단오공원	시민극단, 시민합창단, 강릉시합창단
경축공연	5. 27(목) ~ 6. 3(토)	강릉 문화원	강릉 문화원
경축공연	5. 30(일)	수려대강	강릉문화원, 강릉문화재단
경축공연	5. 30(일)	단오문화관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경축공연	5. 28(일)	단오문화관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경축공연	5. 31(수)	단오문화관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경축공연	6. 1(목)	마리대강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경축공연	6. 3(토)	강릉문화관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2017 강릉단오제 리플렛 (영문)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Sintongdaeng Gilnori (Street Parade)
Sintongdaeng Gilnori is a street parade on the theme of Gangneung Danoo Festival or tradition and culture of Gangneung and is writing a new history for Korean-style Gilnori.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Danoodung Geolgi (Hanging Danoo Lamps)
Those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can either follow the Welcoming Parade with Danoo lanterns carried in their hands or hang them in Danoo Park. The lanterns hung by people making a wish create a spectacular scene and have become another must-see attraction in Gangneung Danoo Festival.

Performance



Performances
Various kinds of performance with the focus on traditional performance, plays conducted by domestic teams and invited foreign teams, youth festival, etc. are unveiled throughout the festival period, making the event more exciting and exuberant.

Folk Flea Market



Folk Flea Market
The biggest folk flea market is formed during the period of Gangneung Danoo Festival. The market with an array of delicious food and cheap items has been leading the culture of traditional market in the festival and a driving engine for a thousand years.

Danoo Experience Village

Program Title	Fee	Description
Making and Tasting Sotolgi (Sweet Rice Cake)	Free of charge	Taste Rice Cake with Korean herbs and Taste Sotolgi (Sweet Rice Cake) made with ginseng root by Gangneung citizens.
Tasting Danoo Sotolgi	Free of charge	Taste Rice Cake with Korean herbs and Taste Sotolgi (Sweet Rice Cake) made with ginseng root by Gangneung citizens.
Washing Hair in Inju Water	₩1,000	Wash your hair in Inju water to smooth hair and block off heat for summer.
Drawing a Mask of Gwanoo Mask Drama	₩3,000	Draw a Mask of Gwanoo Mask Drama or a mask of the character.
Making a Mask of a Gwanoo Mask Drama (Character)	₩5,000	Draw a Mask of Gwanoo Mask Drama or a mask of the character.
Rolling (Leif) Danoo Character	₩2,000	Take a Rollup of Gangneung Danoo Character.
Drawing on a Danoo Fan	₩3,000 / ₩5,000	Draw on a Danoo fan to avoid the heat and bad luck.
Hanging Danoo Tea	₩2,000	Have Danoo Tea with learning etiquette and relaxing.
Coloring the Gangneung Danoo Festival yourself and send it to your Dear One.	₩1,000	Color the Gangneung Danoo Festival yourself and send it to your Dear One.
Making a Danoo Lamp	₩1,000 / ₩2,000	Experience of making a Danoo lamp with a wish for the Danoo Festival.
Oliver's Ring Purse Experience	Free of charge	Experience of making a wish using the Olympic Ring Purse.
Danoo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2,000 / ₩5,000	Experience of Gangneung Market, wearing various traditional Danoo costumes (hanbok, etc.)
Exchange of Danoo Souvenir (Souvenir Stamp)	Free of charge	Exchange the coupon for Danoo Souvenir (Souvenir Stamp).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hibition and Demonstration Programs

Program Title	Description
Traditional Handicraft of Town	Demonstration of how to make gobun yangnyeol (the form of a Korean belt) by the holder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and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relevant program.
Strong Building Experience	Experience of making a key ring and a teaspoon with bangja (high quality brass tableware) after visiting the exhibition of Kim Won-cho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4).

Folk Plays

Events	Period	Venue	Organizer
Madam Gwanoo	5. 27(Sat) ~ 6. 3(Sun)	Intending Site Danoo Ground	Latin Chamber International Gangneung
Danoo Gwanoo	5. 27(Sat) ~ 6. 3(Sun)	Seung Site Danoo Ground	Rotary Club (Region 3) of Rotary International District 3540
Tanoo Gwanoo	5. 28(Sun) ~ 6. 1(Tue)	Tanoo Experience Court	Imjeong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ssociation
Tanoo Gwanoo	5. 30 (Tue)	Danoo Island	Region 8 Gangneung of Intentional Association of Local Clubs District 354-8 (Gangneung)
Madam Gwanoo	5. 31 (Wed)	Danoo Island	Jangnongso Gangneung Center

Celebrating Cultural Arts Events

Events	Period	Venue	Organizer
Kim Won-choon Exhibiti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4)	5. 27(Sat) ~ 6. 3(Sun)	Change Bridge	Imjeong Folk Arts Center
Madam Gwanoo Exhibiti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5. 27(Sat) ~ 6. 3(Sun)	Danoo Park	Korea Folk Arts Association, Gangneung Branch
Madam Gwanoo Exhibiti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5. 27(Sat) ~ 6. 3(Sun)	-	Gangneung Library Men's Association
The Exhibition of Kim Won-cho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4)	5. 30(Tue)	Sun reading	Youngdong Branch of the Kangwon-Do Kangwon-Do
Madam Gwanoo Exhibiti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5. 30(Tue)	Danoo Cultural Center	Yeongdong Head Office of the Yang Won-Danoo-Bo
The Exhibition of Kim Won-cho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4)	5. 30(Tue)	Danoo Cultural Center	Gangneung Folk Music Research Center
The Exhibition of Kim Won-cho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4)	5. 31(Wed)	Danoo Cultural Center	The Federation of Korea Traditional Music and Music Associations, Gangneung Branch
Madam Gwanoo Exhibiti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6. 1 (Thu)	Danoo Park	Gangneung-jeon Women's Union, Gangneung Branch
Madam Gwanoo Exhibition (Gangneu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12)	6. 3(Sat)	Gangneung Sports Center	Gangneung all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2017 강릉단오제 리플렛 (중문)

市民参与活动 | 神統大吉游街



神统大吉游街是以江陵端午祭或江陵的传统和文化为主题展开的游行活动，开启了韩国传统游街活动的新篇章。

演出



以传统表演为中心的多彩演出，国内交流团体演出，国外受邀团体演出以及青少年艺术节等多种多样的演出活动为端午节期间增添节日气氛。

端午祭体验村

端午祭场设立了端午祭体验村，备有各种体验项目，以便访客尽情体验端午文化。

体验名	体验费	说明
道路山打青糖	免费	免费品尝江陵市传统特产青糖和山打青糖。
糯米串烤肉	1,000韩元	利用具有传统、再次创新的糯米串烤肉。
手持宣纸面具	3,000韩元	手持传统面具的民俗、制作宣纸面具的体验。
制作传统面具活动	5,000韩元	
端午粽子制作	2,000韩元	按照端午传统习俗制作粽子。
端午粽子品尝	3,000韩元	制作独一无二的粽子，避免浪费和浪费。
端午茶体验	2,000韩元	一边品尝端午茶，一边学习礼仪、享受茶礼之方式的茶体验。
制作彩色端午粽片	1,000韩元	制作自己喜爱的江陵端午彩色端午粽片，赠送给亲朋好友。
制作端午灯	3,000韩元	
制作端午灯	5,000韩元	
传统包粽子	免费	利用传统包粽子道具。
端午传统体验	3,000韩元	穿传统服装端午游行，感受各种传统习俗，参加端午传统。
传统交流	端午传统	江陵端午传统(韩语/韩语/韩语/韩语)

民俗游戏活动

项目	日期	地点	承办
端午传统	5.27 ~ 6.3	海陵池	江陵青年会团
端午传统	5.27 ~ 6.3	端午池	国际海防300地区 300地区青年会
传统大会	5.29 ~ 6.1	传统池	江陵文化保护委员会
端午传统	5.30	端午池	韩国传统民俗协会 江陵地区民俗委员会
传统大会	5.31	端午池	中央民俗协会

民俗文化艺术活动

项目	日期	地点	承办
端午传统	5.27 ~ 6.3	海陵池	江陵民俗研究会
端午传统	5.27 ~ 6.3	端午池	韩国传统民俗协会 江陵地区民俗委员会
端午传统	5.27 ~ 6.8	江陵	江陵 文人协会
端午传统	5.27 ~ 6.12	江陵	江陵 文人协会
端午传统	5.30	海陵池	《江陵日报》 民俗协会
端午传统	5.30	端午池	《江陵日报》 民俗协会
端午传统	5.30	端午池	江陵民俗研究会
端午传统	5.31	端午池	江陵民俗研究会
端午传统	6.1	海陵池	江陵民俗研究会
端午传统	6.3	江陵	江陵民俗研究会

无形文化财展示及演示活动

项目	说明
无形文化财展示	江陵市无形文化财展示“上皇庙展示” 制作传统青糖及传统包粽子体验。
无形文化财展示	参加江陵市无形文化财展示“上皇庙展示” 制作传统青糖及传统包粽子体验。

2017 강릉단오제 리플렛 (일문)

市民参加行事



神统大吉(노리)是江陵端午祭和江陵的民俗和文化为主题举行的游行，韩国(노리)的游行也正在进行。

公演



江陵深藏为中心的多彩公演，国内交流公演，国外受邀公演，青少年艺术节等多种多样的特色公演为端午节期间增添节日气氛。

端午祭体验村

프로그램名	费用	说明
江陵市打青糖	免费	江陵市打青糖(신대미)で作った神湯とヤマ모子餅が食べられる無料体験
糯米串烤肉	1,000 원	江陵市打青糖(신대미)で作った神湯とヤマ모子餅が食べられる無料体験
手持宣纸面具	3,000 원	手持传统面具的民俗、制作宣纸面具的体验。
制作传统面具活动	5,000 원	
端午粽子制作	2,000 원	按照端午传统习俗制作粽子。
端午粽子品尝	3,000 원	制作独一无二的粽子，避免浪费和浪费。
端午茶体验	2,000 원	一边品尝端午茶，一边学习礼仪、享受茶礼之方式的茶体验。
制作彩色端午粽片	1,000 원	制作自己喜爱的江陵端午彩色端午粽片，赠送给亲朋好友。
制作端午灯	3,000 원	
制作端午灯	5,000 원	
传统包粽子	免费	利用传统包粽子道具。
端午传统体验	3,000 원	穿传统服装端午游行，感受各种传统习俗，参加端午传统。
传统交流	端午传统	江陵端午传统(韩语/韩语/韩语/韩语)

民俗遊び

项目	日期	会场	行事主管
端午传统	5.27(日) ~ 6.3(日)	海陵池	江陵青年会团
端午传统	5.27(日) ~ 6.3(日)	端午池	国际海防300地区 300地区青年会
端午传统	5.29(日) ~ 6.1(日)	传统池	江陵文化保护委员会
端午传统	5.30(日)	端午池	韩国传统民俗协会 江陵地区民俗委员会
端午传统	5.31(日)	端午池	中央民俗协会

民俗文化艺术行事

项目	日期	会场	行事主管
端午传统	5.27(日) ~ 6.3(日)	海陵池	江陵民俗研究会
端午传统	5.27(日) ~ 6.3(日)	端午池	韩国传统民俗协会 江陵地区民俗委员会
端午传统	5.27(日) ~ 6.8(日)	江陵	江陵 文人协会
端午传统	5.27(日) ~ 6.12(日)	江陵	江陵 文人协会
端午传统	5.30(日)	海陵池	《江陵日报》 民俗协会
端午传统	5.30(日)	端午池	《江陵日报》 民俗协会
端午传统	5.30(日)	端午池	江陵民俗研究会
端午传统	5.30(日)	端午池	江陵民俗研究会
端午传统	6.1(日)	海陵池	江陵民俗研究会
端午传统	6.3(日)	江陵	江陵民俗研究会

无形文化财展示及演示プログラム

プログラム	说明
无形文化财展示	江陵市无形文化财展示“上皇庙展示” 制作传统青糖及传统包粽子体验。
无形文化财展示	参加江陵市无形文化财展示“上皇庙展示” 制作传统青糖及传统包粽子体验。

2017 강릉단오제 행사일일전단

·09:00~18:00 줄다리기 대회 / 단오섬 ·14:00 전통수선발매회 시상식 / 단오문화관 세미나실



2017 Gyeongju Danu Festival



2017년 5월 30일 [화] 단오날 일/정/안/내

장소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단오제단	조전제	축원국	군웅장수국	성주국	축원국		심청국		축원국	지말국	축원국	
수리마당		솔향두동실예술탄 한투리소리회			World PASSION GALA SHOW			국악그림 소리타래춤극		제24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아리마당	제36회 KBS사창기 농악경연대회								강릉관노가면극 보존회		경포동농악대	
단오문화관							강원·새물음 전통타악그룹 태극			강릉리플엔젤스 중창단		

[조전제] 10:00~11:00 / 단오제단
가정과 지역의 화목을 기원하며 단오제단에서 성황신께 올리는 제례이다.

[제36회 KBS사창기농악경연대회] 10:00~17:00 / 아리마당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KBS농악경연대회는 강릉시 관내 7개 마을농악대가 참여하며 함께 경연을 펼치며 강릉농악을 전승·보전하고 있다.

[군웅장수국] 12:00~13:00 / 단오제단
군웅장수국은 일명 논동우 국이라고도 부른다. 군웅의 성격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농신을 모셔지기도 하고 외투에서 들어와 잡귀를 물리는 기능도 있는데 강릉단오국의 군웅은 장수신의 성격이 강하다. 역사적으로 이듬해 난 중국의 우리나라의 여러 장수들을 부르는 장수풀이를 한다. 그런 장수신의 도움으로 지손들이 복받기를 기원한다.

[World PASSION GALA SHOW] 14:00~15:00 / 수리마당
이탈리아 시칠리아, 태국 치앙라이, 말레이시아, 라트비아 4개국의 전통민속무용이 펼쳐진다.

[심청국] 15:30~17:30 / 단오제단
무녀는 것을 쓰고 손대를 어깨에 매고 국을 한다. 심청국은 서사무로 다른 악사들은 물리고 창고쟁이와 단 둘이서 국을 한다. 내용은 심청기와 거의 동일하다. 이 국을 하는 목적은 눈이 밝아 고기를 잘 잡고 심청이 같은 호녀말을 낚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다.

[강원·새물음 전통타악그룹 태극] 16:00~17:00 / 단오문화관
'강원·새물음(Gangwon-Syndrome)'은 한국전통의 악(樂), 가(歌), 무(舞)로 새로이 풀이되는 우리고장 강원만의 특색있는 공연을 보여준다. 강원만의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힘찬 도약과 포부의 강인함을 담은 공연이다.

[강릉관노가면극 보존회] 18:00~19:00 / 아리마당
국내 유일의 무언 가면극으로 대사 없이 춤과 몸짓으로만 표현한다. 사랑과 오해 그리고 화해의 스토리로 구성되는 전체 5과장의 마당극이다.

[제24회 강릉사투리경연대회] 19:00~21:00 / 수리마당
강릉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강릉사투리의 향연!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가 강릉사투리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경연대회로 강릉단오제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주최: 강릉시청,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협찬: 강릉시청, 강원문화재단, HYUNDAI, NH, KYOBO 2017년

2017 강릉단오제 행사일일전단

GANGNEUNG DANUJE FESTIVAL 2017



2017 Gyeongju Danu Festival



2017년 6월 2일 [금] 일/정/안/내

장소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단오제단	조전제	축원국	용왕국	축원국	축원국	축원국	축원국	꽃노래국/뱃노래국/ 등노래국	송신제·소제·환우국			
수리마당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경무			전포세계소리축제 진주가야금연주단	2017주민자치시마일한마당			
아리마당		강릉학산오동해기 보존회	강남동농악대	강릉관노가면극 여성문화센터		충주시합예연단		강릉관노가면극 보존회		강릉관노가면극 가톨릭관동대	성덕동농악대	
단오문화관		관노가면연행국								World PASSION GALA SHOW		

[조전제] 10:00~11:00 / 단오제단
가정과 지역의 화목을 기원하며 단오제단에서 성황신께 올리는 제례이다.

[관노가면연행국] 11:00~12:00 / 단오문화관
관노가면극은 대사 없이 춤과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국내 유일한 무언의 관노가면극이다. 관노가면극 연행국은 관노가면극에 해학과 재치가 넘치는 대사를 넣어 연행하므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다.

[강릉학산오동해기 보존회] 11:00~12:00 / 아리마당
강릉도 유물문화재 제5호 강릉학산오동해기는 봄부터 씨앗을 뿌려 가을 타락에 이르기까지 한해의 비닐사 과정을 보여주는 우리 지역의 특색 농요이다.

[한국무용대회] 13:00~17:00 / 단오문화관
한국무용의 정통성과 병행해 제시하고 강릉단오제를 통해 미래 무용인을 양성하는 대표로 초, 중, 고, 대학 및 일반부 대상으로 정국구무, 장학국무, 전통고무, 전통수무 등을 겨룬다.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경무] 14:00~15:00 / 수리마당
진주경무는 진주지역에 전승되는 여성경무로서 경기무 또는 팔송이라고도 하며 대를 한 잔치 때 행하던 춤의 하나이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라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죽은 소년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춤을 추었다는 설과 논밭의 알을 일깨우기 위해 진주경무가 춤출을 한다는 설이 있다. 진주경무는 전통형식, 줄거리, 알 쓰는 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일던 임무와 원형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

[World PASSION GALA SHOW] 19:00~20:00 / 수리마당
이탈리아 시칠리아, 태국 치앙라이, 말레이시아, 라트비아 4개국의 전통민속무용이 펼쳐진다.

[꽃노래국, 뱃노래국, 등노래국] 16:30~18:00 / 단오제단
- 꽃노래국: 무녀들이 여럿이 나와 국상과 꽃 두 개를 왼손에 걸러 찬다. 그리고는 꽃뿔을 하면서 원무를 춘다. 국상의 꽃뿔은 신들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
- 뱃노래국: 국상에 매어놓았던 용선을 흔들면서 무녀가 노래를 부른다. 용선은 오색색종이 단오국을 잘 받은 신들이 놀아가실 때 타고 가는 배이다. 단오국이 끝날 때면 대관령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신이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등노래국: 등노래는 두 번으로 나뉘어 행해진다. 처음에는 초콜릿 노래가 있는데 무녀가 두명씩 마주 서서 국상에 있던 초콜릿 등을 들고 춤을 추며 무가를 부른다. 이어서 발등을 들고 무녀는 이 등을 발등까지의 과정을 구연한다. 마지막으로 담 등을 둘러면서 추는 춤으로 끝난다.

[강릉관노가면극보존회] 17:00~18:00 / 아리마당
국내 유일의 무언 가면극으로 대사 없이 춤과 몸짓으로만 표현한다. 사랑과 오해 그리고 화해의 스토리로 구성되는 전체 5과장의 마당극이다.

[2017 주민자치시마일한마당] 18:00~22:00 / 수리마당
강릉시 19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수강생들이 함께 모여 그동안 익힌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이다.

[송신제, 소제] 18:00~19:30 / 단오제단
송신제는 강릉단오제의 마지막 제례로 국사성황신은 대관령으로, 국사여성황신은 종재동으로 다시 오시는 제례이다. 제례 후에는 채근, 무속들이 신곡과 지파, 뽕, 유선, 신위 등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소제에서 지장명종제 행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강릉시천하평당교놀이] 20:00 / 단오공원
음력 2월 초새해 종새날,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전리마을과 허평마을에서 사천현을 사이에 두고 풍년을 기원하던 민속놀이를 재현한다. 다리오, 풍복음, 햇볕싸움, 다리밧기 같은 놀이들을 통하여 승부물 걸락 한 해 농사의 풍요를 장치는 내용이다.

2017 강릉단오제 신주미봉정 안내문<앞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2017년도
강릉단오제

“신주미 神酒米 봉정” 안내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 강릉단오제는
강릉시민이 천년동안 지켜온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보존해 나가야할 신명나는 축제입니다.

강릉시민들의 참여로 모은 헌미는
대관령 산신제·국사성황제·봉안제·영신제·영신행차·조전제에서
음복할 수 있는 제주(祭酒)와 떡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단오 체험촌의 “수리취떡 만들기”와 “신주 시음회”를 통하여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2017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빛기가 오는 4월 30일(일·11:00) 칠사당에서 거행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가정과 지역의 안녕,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4.



사 | 강릉단오제위원회위원장 조 규 돈
사 | 강릉단오제보존회장 김 종 균

‘신주미神酒米봉정’에서
‘신주빚기’까지는 이렇습니다.



신주미와 누룩 봉정



신주미 봉정



칠사당에 접수된 신주미



신주 향아리 제독(除毒)



부정굿



신주빚기

※신주미 봉정 접수안내

- 신주미 봉정 접수 기간 및 장소
 - 읍·면·동 : 4. 3(월)~4.30(일) <10:00~18:00>
 - 칠 사 당 : 4.28(금)~4.30(일) <10:00~18:00>

- 문의 및 안내
 - 사단법인 강릉단오제위원회
 - 033) 641-1593 / 1594
 - www.danojefestiva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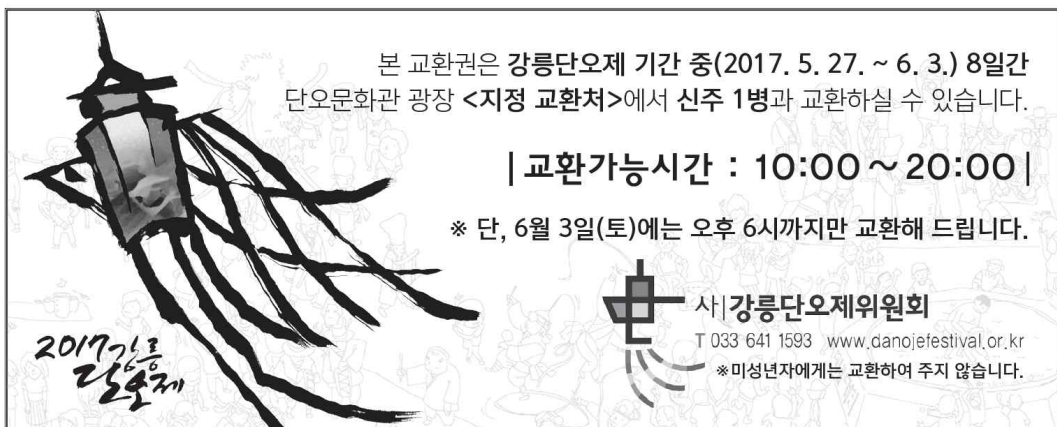


신주안치

2017 강릉단오제 신주교환권<앞면>



2017 강릉단오제 신주교환권<뒷면>



2017 강릉단오제 신주미기원문

④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2017년 5월 5일
강릉단오제

丁酉年 神酒米 奉呈

주소 :

가족 성명

생년월일

勅令
 五月五日
 午時出勅令
 是非
 口舌
 飲米

기원의 글



2017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초청장 <겉지>



다·나·류·다·중

2017년 9월 10일

2017 Gangneung Danje Festival
2018 강릉단오제위원회 신안거처를 위한



A thousand years' harmony
Gangneung Danje Festival
천 년의 어우러짐 강릉단오제



우)25586 강원도 강릉시 단오정길 1 (2층)
Tel. 033)641-1593 Fax 033)646-1595
www.danojefestival.or.kr



우)25586 강원도 강릉시 단오정길 1 (1층)
Tel. 033)643-1301 Fax 033)643-1306
www.danoje.or.kr

2017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초청장 <속지>



2017 강릉단오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5월 27일(토)부터 강릉단오제의 막이 오릅니다.
 올해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향한 열정을 담아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준비했사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위원장 조 규 돈
 (사)강릉단오제보존회 회장 김 종 군



모시는 날

영신행차(신릉대길 길놀이) 2017. 5. 28(일) 19:00~21:00 강릉시 중앙로
 행사기간 2017. 5. 27(토) ~ 6. 3(토)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

2017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안내문 <겉지>



2017 Gangneung Danoje Festival
2018 통합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열정

**2017강릉
단오제**

영신행차 안내문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
2017.5.27(토)~6.3(토)

주최: 강릉문화재단, 강릉시, 강릉시문화재단, 강릉시관광진흥과, 강릉시체육회,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강릉시장애인복지관, 강릉시장애인복지회, 강릉시장애인복지협회, 강릉시장애인복지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영수번호:

**2017강릉
단오제 경품권**
Gangneung Danoje Festival

본 경품권을 6월 3일(토) 19:00 단오장 수리마당에서 열리는 <공개 주점 행사>에 참석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강릉문화재단, 강릉시, 강릉시문화재단, 강릉시관광진흥과, 강릉시체육회,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강릉시장애인복지관, 강릉시장애인복지회, 강릉시장애인복지협회, 강릉시장애인복지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영수번호:

**2017강릉
단오제 경품권**
Gangneung Danoje Festival

본 경품권을 6월 3일(토) 18:00 까지 <경품 주점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점함에 꼭 넣어주세요.

주최: 강릉문화재단, 강릉시, 강릉시문화재단, 강릉시관광진흥과, 강릉시체육회,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강릉시장애인복지관, 강릉시장애인복지회, 강릉시장애인복지협회, 강릉시장애인복지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강릉시장애인복지지원센터



2017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안내문 <속지>



2017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안내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5월 28일(일)에 강릉단오제 영신행차가 펼쳐집니다.
올림픽을 향한 열정을 오롯이 담은
영신행차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5.

 사 | 강릉단오제위원회위원장
 사 | 강릉단오제보존회회장

"강릉단오제의 감동과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단오등 및 경품권 접수 방법

Gangneung Danojje Festival

영신행차 단오등 가격 : 5,000원

경품권 판매 장소 : 강릉시 21개 읍·면·동,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사무국

현장판매 및 접수

- 5월 28일(일) : 임영관아터 (영신행차 대기장소) <15:00 ~ 19:00>

- 5월 29일(월) ~ 6월 3일(토) : 단오공원 <10:00 ~ 19:30>

[단, 6월 3일(토)에는 18:00까지만 판매 및 접수 가능]


- 경품명 :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17 강릉단오제 소지

2017년 강릉단오제
丁酉年

소원의 글



성명	생년월일

주소 :

2017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팸플릿

※ 목차순으로 출발 • CONTENTS



2017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는
강릉시 읍·면·동
21개 팀과
일반 3개 팀이
참여합니다.

2017. 5. 28(일)
19:00~22:00

출 발 ▶ 강릉의료원
공연장 ▶ 남산교

1	주문진읍	-05
2	구정면	-06
3	옥계면	-07
4	연곡면	-08
5	왕산면	-09
6	성산면	-10
7	사천면	-11
8	강동면	-12
9	옥천동	-13
10	초당동	-14
11	성덕동	-15
12	홍제동	-16
13	강원C 유소년축구단	-17
14	중앙동	-18
15	강릉원주대학교	-19
16	포남1동	-20
17	강남동	-21
18	링크하우스강릉스쿨	-22
19	포남2동	-23
20	내곡동	-24
21	교2동	-25
22	경포동	-26
23	교1동	-27
24	송정동	-28

2017 강릉단오제 식권 <앞면>



2017 강릉단오제 식권 <뒷면>



2017 강릉단오제 자원봉사자 메뉴얼

06 파트별 세부 업무 안내

1) 활동시간 - 오전활동 : 09:00 ~ 15:00 (6시간)

- 오후활동 : 15:00 ~ 21:00 (6시간)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오후활동 자원봉사자는 여정시간을 엄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인수인계를 반도록 함. 행사에 따라 교대시간 변경가능.

2) 활동내용

◆ 체험촌 도우미 (활동장소 : 단오장 내 체험촌)

- 체험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질서 및 동선을 유지시킨다.
- 체험촌 주변은 깨끗히 정리하고 폐장시엔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폐장을 시작 한다.

◆ 단오등 접수 (활동장소 : 단오문화관 광장)

- 행사기간동안 행사장 내에서 단오등을 판매 및 접수하고 판매 된 단오등 수량과 금액을 관리하고 폐장시엔 수량을 파악하여 사무국에 보고한다.
- 단오공원 내 단오등 다는 것을 도와준다.

◆ 단오등 소지수거 (활동장소 : 단오공원)

- 소제 행사때 단오공원에 걸려 있는 소지를 수거하여 단오섬 (소제행사지)으로 가져다준다.

◆ 행사사진 자원봉사 (활동장소 : 단오장 내)

- 행사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제공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진촬영을 한 후 담당자에게 휴대폰 또는 메일로 당일 전송한다.

◆ 잉어 조형물 소원지 붙이기 (활동장소 : 단오섬)

- 단오섬 내에 있는 잉어 조형물에 소원지 붙이기 운영이 수월하게 되도록 질서 및 동선 유지시킨다.
- 폐장시에는 주변 정리 후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 식수관리 활동 및 모유수유실 관리 (활동장소 : 단오장 내)

- 행사장 내 냉온수기에서 식수를 제공받아 노약자들에게 식수를 제공한다.
- 모유수유실 내 청결활동을 한다.

◆ 행사장 청결 활동 (활동장소 : 단오장 내)

- 행사장 내 청결활동을 한다.

10

아치



가로등 배너



단오문화관 전시동 현수막



단오문화관 공연동 현수막



단오장 행사장 내 현수막



단오장 행사장 내 현수막



<부록> 6.

— 2017 강릉단오제 —

행사 관련 사진 모음

신주빚기



대관령산신제



국사성황제



구산서낭제



학산서낭제



봉안제



영신제



영신행차



조전제



단오굿



관노가면극



강릉농악



기획공연 <굿 with us>



기획공연 <강릉아리랑>



신통대길 길놀이



신통대길 길놀이



단오체험존



단오체험존



청소년댄스페스티벌



청소년가요제



민속놀이



민속놀이



외국인단오체험



불꽃놀이



(신문)

경향신문

천년축제 '강릉단오제' 27일 개막

최승현 기자 chdms@kyunghyang.com



강릉 단오제 관노가면극 | 강릉시 제공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오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강릉 남대천 일원에서 열린다.

전통이 숨 쉬는 제례와 신과 사람이 소통하는 굿판, 신명이 넘치는 각종 연희와 공연 등으로 꾸며진 강릉단오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의 민속축제다.

올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향한 열정'을 주제로 국가 지정문화재행사, 시민참여행사, 민속놀이행사 등 12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강릉대도호부 관아에서 시작해 도심 2km 구간에서 열리는 한국형 길놀이의 정수인 신통대길 길놀이(영신행차)에는 주민 1~2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2018인분의 수리취떡 퍼포먼스 시연, 2018명의 메시지로 잉어조형물을 완성하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이탈리아, 태국, 말레이시아, 라트비아 등 다양한 국외 초청공연과 전통연희 등이 연일 펼쳐진다.

대한민국 탈춤연합 11개 공연단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탈춤제, 한국무용대회, 민요경창대회, 슬하아리랑제 등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경연대회도 이어진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강릉단오제는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를 세계인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속축제다"며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단오제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강릉]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 화려한 개막

지역 강릉

2017-5-27 (토) 9면 - 조상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남대천 단오장서 굿 공연 난장 등 71개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 길놀이·영신행차·불꽃놀이 축제 열기 더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가 27일 강릉남대천 단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강릉단오제는 전통이 숨 쉬는 제례와 신과 사람이 소통하는 굿판, 신명이 넘치는 각종 연희와 공연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으로 꾸며지며 12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마련돼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한다. 올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향한 열정을 주제로 28일 오후 6시부터 강릉지역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길놀이의 정수인 신통대길 길놀이가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28일 오후 6시 홍제동 여성활사에서 영신제를 봉행한 뒤 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이 강림한 신목을 단오제단으로 모시는 영신행차에 이어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준비한 신통대길 길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남산교 위에 레드카펫을 펴고 모든 행사와 놀이가 남산교를 통과하게 해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다.

강릉단오제의 개막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는 27일 밤 9시와 영신행차 및 신통대길 길놀이가 절정에 다다른 28일 밤 10시 등 두 차례 강릉단오장의 하늘을 수놓게 된다.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첫 주말인 27일과 28일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강릉단오제로 꾸며져 청소년 가요제와 댄스페스티벌, 청소년 참여형 축제인 DYF(DANO YOUTH FESTIVAL)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또 굿을 굿당이 아닌 무대에서 선보여 굿의 성공적인 무대화도 평가받고 있는 기획공연 '굿 워드 어스', 대한민국탈춤연합 11개 공연단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탈춤제도 강릉단오장에서 펼쳐져 한국 전통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

키워드 뉴스 | 강릉단오제, '천년의 축제'로 빠져들다..내달 3일 까지

2017-05-27 11:12:11 | 4면 | 1면 | 2면 | 3면 | 4면



천년의 역사를 가진 축제 강릉단오제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8일간 강릉 남대천 행사장에서 개최된다.

강릉단오제는 전통이 숨 쉬는 제례와 신과 사람이 소통하는 굿판, 신명이 넘치는 각종 연희와 공연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의 난장 등으로 꾸며진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의 민속축제이며,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축제이다.

올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향한 열정'을 주제로 국가 지정문화재행사, 시민참여행사, 민속놀이행사 등 12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다.

먼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열정을 담은 굿 한석, 특히 굿을 굿당이 아닌 무대에서 선보여 굿의 성공적인 무대화로 평가받고 있는 기획공연 「굿 위드 머스」를 선보인다. 또한, 지역의 마리랑 소리를 새롭게 모색한 기획공연 「소리극 강릉마리랑」,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주제로 펼쳐지는 한국형 길놀이미의 정수인 전통대길 길놀이 등도 펼쳐져 축제의 열기를 더 할 전망이다.

그리고, 2018인분의 수리취떡 퍼포먼스 시연, 2018명의 메시지로 잉어조형물을 완성하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열정을 담고 있어 2017 강릉단오제는 문화올림픽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 역시 다채롭다. 미탈리아 시칠리, 태국 치알리미, 말레이시아, 라트비아 등 다양한 국외 초청공연이 이루어지며, 국가 및 지역무형문화재 공연을 비롯한 전통연희 등이 연일 펼쳐진다. 특히, 대한민국 탈춤연합 11개 공연단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탈춤제 그리고 한국무용대회, 민요경창대회, 순항마리랑제 등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경연대회가 이어져 강릉단오제의 한국전통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 가요제와 댄스페스티벌, 청소년 참여형 축제인 DYF(DANO YOUTH FESTIVAL) 등 청소년 참여가 확대되며, 한 청 실버가요제와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의 골드페스티벌이 추가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인 강릉단오제만의 장점도 부각된다.

무엇보다 주차장 완비(서둘은행),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민속놀이 행사장 정비개선, 향토음식점과 체험촌의 위치 교체를 통해 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등 공간 활용 측면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수리마당 전광판 확대, 모유수유실 확대 등 환경시설 개선으로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국내외 반응이 벌써 뜨겁다. 해외문화홍보원 초청 한국특집다큐 제작을 맡은 해외연론인들이 강릉단오제를 담은 예정이며, 외국인 단오체험 참가자 수는 사전 예약 3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행사 중 무료 해설 서비스인 단오해설사 프로그램을 사전에 요청하는 사례도 빗발치고 있다.

최명희 강릉시장과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조규돈 위원장은 "천년의 축제를 이어온 단오의 신명이 세계인이 하나 된 열정으로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의 대표 축제로 한국적인 문화 콘텐츠를 보여 줄 수 있는 장으로서 문화올림픽 성공개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밤낮없이 붐비는 강릉단오제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 개막 첫날인 27일 밤(왼쪽)과 28일 낮(오른쪽) 강릉시 남대천 둔치 단오장 일원에 많은 관람객이 찾아 천 년 축제를 즐기고 있다. 2017.5.28

강릉 최대 축제 구경하세요

2017/05/28 20:49 송고



정지 ▶ ||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 이틀째인 28일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신릉대길 길놀이가 펼쳐져 수많은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강릉시 관내 읍면동 21개팀과 일반 3개팀이 참가해 '강릉의 열정'이란 주제로 신명나는 길놀이를 펼쳤다. 2017.5.28/뉴스1 sky4018@news1.kr

'체험·참여형' 전통축제 매력에 흠뻑

단오제 길놀이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박길 축제 세계화 실감

이서영 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Print + - Full Screen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2017김홍단오제가 열리는 가운데 28일 김홍 남대천 단오장에는 많은 인파가 화려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 이재동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이면서 국가무형문화재(13호)인 강릉 단오제가 체험·참여형 전통축제의 백미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7일 막을 올린 '2017 강릉단오제'에는 주말휴일 이틀간 모두 36만명의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연출했다.영동권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은 공연장과 체험촌을 찾아 창포 머리갈기와 단오부채 그리기,관노탈 그리기,단오등(燈) 만들기 등의 체험 재미를 만끽했다. 체험객들 가운데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어 단오 축제의 세계화를 실감케했다.

28일 밤 강릉 시내 2.1km 중심가에서 펼쳐진 영신협차와 신릉대길 길놀이는 인간과 신이 어우러지는 단오 군무(群舞)의 진수를 선보였다.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의지를 담기 위해 '강릉의 열정'을 주제로 펼쳐진 이날 신릉대길 길놀이는 참가자와 관람객 규모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4개팀 3000여명의 시민이 동계올림픽과 강릉의 마을 설화 등을 소재로 다채로운 거리 퍼포먼스를 연출했고,면도에 들어선 4만여명의 시민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어깨춤으로 가장 강릉다운 길놀이 문화의 흥에 열기를 더했다.

특히 '한복동무단(단장 권혁표)'은 100여명이 전통한복을 입고 거리행진에 참가,전통의 멋을 뽐내는데 한몫했다.

주말과 휴일 이틀간 대한민국탈춤제와 기획공연 '굿 위드 어스',청소년 가요제와 댄스페스티벌,국의초청공연단의 '월드 패션 걸라쇼' 등으로 인기몰이에 시동을 건 단오제는 29일부터 단오굿 등 공연을 부각화 하면서 전통축제의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서영

'천년축제' 길놀이 행사로 흥겨운 강릉

강릉단오제 36만명 온집
시민관광객 군무로 화합
오늘 단오굿 문화제 공연

최종필 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Print + - Full Screen



▲ 영신행차

강릉단오제 36만명 온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2017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영신행차가 28일 오후 종자동 영성광사를 출발해 단오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 단오제'에 주말휴일 이틀간 수십만 관람 인파가 몰리면서 강릉이 전통 축제의 향연으로 들쭉이고 있다.강릉단오제위원회에 따르면 27일과 28일 이틀간 각각 18만명씩 모두 36만여명의 관람객이 날대천 단오장을 찾아 '천년 축제'를 즐겼다.단오제는 28일 밤 영신행차와 함께 '신동대길' 길놀이가 강릉시내에서 펼쳐지면서 축제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의지를 모으기 위해 '강릉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신동대길 길놀이는 역대 최대규모 거리 퍼포먼스로 펼쳐져 더욱 주목을 끌었다.

강릉시내 21개 읍면동을 비롯 24개팀 3000여명이 길놀이에 직접 참가해 올림픽 마스코트와 한복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연출하면서 연도의 4만 시민관광객과 어우러지는 거대한 군무를 선보였다.주말휴일을 맞아 대한민국 탈춤제와 기획공연 '굿 위드 어스'청소년 행사 등에 구름인파가 몰렸고 창포머리감기,수리취떡 맛보기 등 체험마당에도 긴 줄이 이어졌다.강릉 단오제는 29일에는 기획공연 소리극-강릉아리랑이 무대에 오르고,단오굿을 비롯한 무형문화재 공연이 본격적으로 흥을 돋운다.

신나는 강릉단오제 밤...신통대길 길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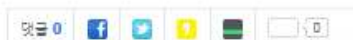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8일 저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국사성황을 모시 : 영신행차와 함께 주민이 함께하는 신통대길 길놀이가 흥겹게 펼쳐지고 있다. 2017.5.28
oo21@yna.co.kr
(끝)

'소리극강릉아리랑' 단오제 무대오른다

오늘 오후 7시 수리마당
아리랑+연극 조합 주목

이서영 2017년 05월 29일 월요일



크기 + - 확대 축소

'민족의 소리' 아리랑 극이 '가장 한국적인 축제' 단오제 현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화제의 공연은 올해 단오제에서 기획공연으로 준비된 '소리극 강릉아리랑(29일 오후 7시 단오장 수리마당)·강릉지역의 아리랑 소리에 연극을 덧입힌 새로운 접근과 시도라는 점에서 기획 초기부터 크게 주목을 끌었다.

강릉아리랑은 강릉지역에서 구전된 향토민요로서 지역 주민들이 모내기를 할 때나 놀이 자리에서 불렀던 노래다.

이번 단오제 기획공연에는 강릉아리랑보존회와 학산오독떼기보존회·강원민요연구원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소리극 강릉아리랑'은 83세의 노모인 '왕산댁'이 강릉아리랑과 함께 해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앞으로의 희망을 노래하는 줄거리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의 총감독을 맡은 강동학 강릉원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강릉아리랑에 이야기를 입히는 일은 강릉아리랑이 품고있는 세상살이와 정서를 재현하는 작업"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보다 건강하고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강릉아리랑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영 arachi21@kado.net

江原日報

[포토뉴스]강릉 단오제 구름인파

사회 포토뉴스

2017-5-29 (월) 1면 - 권태영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천년축제 강릉단오제(중요무형문화재 13호)가 남대천 둔치에서 개막됐다. 28일 밤 단오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단오제는 6월3일까지 열린다.

江原日報

CJ헬로비전 영동방송 강릉단오제 특집 생방송

문화

2017-5-29 (월) 21면 - 이하늘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역 밀착형으로 새롭게 단장한 CJ헬로비전 영동방송이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연속 3시간 라이브로 진행되는 특집 생방송 `현장! 2017강릉단오제`를 방영한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강릉단오제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금 단오장`, 강릉단오제의 3대 핵심 요소인 제례, 관노가면극, 굿의 예능보유자인 최종설, 빈순애, 김중군을 차례대로 만나는 `오늘의 단오인물` 등의 코너로 구성된다. 스튜디오에서는 정유진 MC와 강릉단오제 전문가인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단오제의 의미와 정보를 재밌게 풀어낸다.

'창포에 머리 감고, 뮤지컬에 불꽃도 보고'...강릉단오제 36만 관람객 찾아

내달 3일까지 다채 행사

CNB NEWS 김경수 기자/2017.05.29 16:07:25



▲강릉단오제를 맞아 창포에 머리를 감는 아이들의 모습. (사진=페이스북 캡처)

"언제 한번 창포물에 머리 감아보겠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신과 소통하는 영신행차도 보는 강릉단오제가 내달 3일까지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29일 강릉단오제위원회에 따르면 27일과 28일 이틀간 각각 18만명씩 모두 36만여명의 관람객이 남대천 단오장을 찾아 단오제를 즐겼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의지를 모으기 위해 펼쳐진 신통대길 길놀이하는 역대 최대규모 거리 퍼포먼스로 마헌돼 주목을 끌었다.

강릉 단오제는 29일 기획공연 소리극-강릉아리랑이 무대에 오르는 등 단오굿을 비롯한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진다.

주말인 오는 3일 강릉학산오독떼기와 강릉관노가면극, 사물놀이경연대회 등이 무대에 오른다.

강릉단오제, 청소년 화합마당 되다

강원도민일보
kado.net

세계 평화 교육페스티벌 개최
청소년댄스페스티벌 등 호응

이서영 2017년 05월 30일 화요일

댓글 0

핀트 + - 0 0 0



▲ 남경문 도의하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이 29일 강릉 단오제 수리마당에서 열린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 개최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강릉단오제가 청소년들의 화합마당이자 '끼' 자랑 무대로 자리잡고 있다. 29일 단오장 수리마당에서는 '2017 세계평화교육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7개국 청소년들이 참여, 게임, 토론, 협동작업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서로간 화합을 다졌다.

민병희 교육감은 개회사에서 "생활 속 작은 실천과 변화를 통해 내 마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구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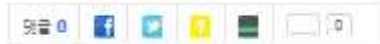
이에 앞서 지난 27~28일 단오장에서 진행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단오공원에서 열린 '2017 청소년 단오축제 D.Y.F'에는 청소년 동아리 27개팀이 참가, 곤충 초콜릿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모기 퇴치 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또 행사장에 마련된 작은 공연장에서는 춤, 노래, 랩 등 청소년들의 끼 자랑 무대가 잇따라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앞서 27일 진행된 '단오맞이 제 21회 청소년가요제'와 '단오맞이 2017 청소년댄스페스티벌'에도 수천명의 청소년들이 운집하면서 단오장에 젊음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이서영 arachi21@kado.net

단오제 현장에서 올림픽 붐업 확산

스마일평화의벽 건립 캠페인
마스코트 뱃지 만들기 등 호응

최동열 | 2017년 05월 30일 화요일



본문 + - < > < >



▲ 강릉 단오제 현장에서 '스마일 캠페인'과 '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 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올림픽 붐업을 이끌고 있다.

강릉 단오제 현장에서 올림픽 시민운동인 '스마일 캠페인'과 평화올림픽 유산을 남기고 통일의 꿈을 키우기 위한 '평화의 벽&통합의 문' 건립 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에 기록제가 되고 있다. 강릉지역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스마일 강릉 실천협의회(회장 최길영)는 남대천 단오장에서 '스마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를 비롯 스마일 마스코트인 스스-마미-이로 등의 캐릭터를 활용한 스마일 뱃지 만들기, 청사초롱 등(燈) 만들기 활동이 병행되면서 홍보 체험 부스는 연일 발디딜 틈 없이 만원이다. 강릉시 올림픽대회추진단 이화정 시민참여담당은 "시민·관광객들이 본인의 재능기부로 올림픽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더욱 즐거워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8 평화의 벽 건립위원회'는 올림픽 기념물인 평화의 벽에 이름과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홍보 활동을 전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광객들은 평화의 벽 캠페인에 동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한 '평화가 안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유심히 살피며 큰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스마일 캠페인과 평화의 벽 캠페인은 모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힘을 더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연계효과도 크다.

단오장에서는 또 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와 문화도민운동 강릉시협의회가 마련한 홍보 부스와 올림픽 체험관 등이 운영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동열 dychoi@kado.net

江原日報

[포토뉴스]단오제 수놓은 불꽃놀이

사회 포토뉴스

2017-5-30 (화) 5면 - 권태명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난 28일 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열리고 있는 강릉시 남대천 둔치의 단오장 위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단오제-제주 탐라문화제 교류 행사 호평

제주도 말총 시연·체험행사
'이호남당 멜 그물칠' 공연도

구정민 2017년 05월 30일 화요일

댓글 0      0 전체 + -  



▲ 제주 탐라문화제는 강릉단오제와의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한오갈내 체험부스에서 제주도 말총으로 전통 갓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강릉단오제와 제주도 최대 전통 축제인 탐라문화제의 20년 교류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강릉단오제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예총은 올해 강릉단오제와 탐라문화제 교류 20주년을 기념해 탐라문화제 민속예술경연 우수상을 수상한 '이호남당 멜 그물칠' 공연을 선보였다. 또 단오제 기간 중 체험부스에서 제주도 말총(말의 꼬리털)으로 전통 갓과 망건, 탕건, 고분양태 등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 시민 관광객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도시에서는 처음 진행된 이번 시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조선시대 '갓'을 만드는 작업)과 제66호 망건장, 제67호 탕건장,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2호 고분양태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이수자, 전수생 등이 총출동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강릉단오제와 탐라문화제는 지난 1998년 교류를 시작한 이후 강릉은 매년 관노가면극과 강릉농악, 단오굿 등을 제주에 선보였고 제주는 고유의 민속예술과 민요, 굿 등 문화유산을 강릉에 알리며 상생 교류의 인연을 돈독히 했다. '갓일' 강순자(73·여) 총모자장 보유자는 "강릉사람들에게 제주도 말총으로 갓을 만드는 작업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양지역간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정민

강릉시, 단오제 기간 '축제 트래블버스' 운영...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릉시, 단오제 기간 '축제 트래블버스' 운영...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릉/아시아투데이 김영준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단오제 기간(5월30일~6월3일) 동안 온라인 여행사와 공동프로모션을 통한 버스자유여행상품 '축제 트래블버스'를 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축제 트래블버스'는 교통수단,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지방여행을 주저했던 외국인 개별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과 투어를 결합한 관광상품이다.

현재 여행, 대안, 숙박의 시장을 대상으로 추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4월 포항공과대학교 기획원 판매운영팀 '강릉 포항공과대'는 5월 동안 160명의 해외 개별관광객이 강릉여행을 경험했다.

이번 '강릉단오제 축제투어'는 경포화 자전거투어, 강릉커피거리, 주문진 소불아름바위공원, 도계비활영지(주문진 방사재), 아라나의 집 와이어, 중앙시장 투어, 영신항차 함여 등 단오축제를 체험하는 일정을 주요 관광 명소 여행상품으로 구성 운영된다.

강릉시 관광과장은 "축제 트래블버스를 외국인 개별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관광, 한류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해외 홍보마케팅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명희 강릉시장 강릉단오제 조전제

(아시아뉴스통신=이순철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6월 30일 18시 26분



30일 최명희 강릉시장은 강릉 남대천 둔치에서 열리고 있는 강릉단오제 조전제(기우제 포함)를 지내고 있다. (사진제공=강릉시청)

단옷날 밤 밝히는 강릉단오제 단오등 news1 포토

2017/05/30 20:56 송고



정지 ▶ ||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30일 오후 남대천 단오문화관 일원에서 열린 강릉단오제에서 시민들이 달아놓은 단오등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다. 2017.5.30/뉴스1 sky4018@news1.kr

2018개수리취떡 맛보고 올림픽 성공 기원

단오제 수리취떡 나누기 행사
시민 "올림픽 불입 알장" 다짐

이서영 2017년 05월 11일 수요일

|리|

금목 + - 04 04 04



▲ 강릉단오제위원회(위원장 조규문)는 30일 강릉 남대천 단오장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대형 수리취떡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서영

단오절기 계절 음식인 수리취떡 2018개를 시민들이 한입 가득 베어 즐기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이색 이벤트가 단오날인 30일 강릉 남대천 단오장에서 펼쳐졌다. 이날 수리취떡 나누기 행사는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을 250여일 앞두고 열리는 단오제를 맞아 올림픽 성공개최에 한마음 의지를 모으는 '2018 열정 시리즈'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행사에서는 최명희 강릉시장과 조영돈 시의장, 조규문 강릉단오제위원장, 김종근 단오제보존회장, 이종훈 롯데주류 대표이사가 대형 수리취떡을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최시장은 "올해 단오제 이후에는 내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250여일 남은기간에 시민 모두가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갖고 자질없이 준비에 나서자"고 말했다.

퍼포먼스에 참여한 유애희(54·여·서울시 도봉구) 씨는 "단오제 구경을 왔는데 수리취떡을 맛보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도 키우게 됐다"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나도 친잠잠서 등 작은 일 부터 힘을 보태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오장 단오성에서는 대형 철골 잉어 조형물이 시민들의 메시지로 완성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신라시대 경주의 무일랑이 강릉의 연화부인과 잉어를 매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꽃피웠다는 강릉 남대천 율화정 설화에 기인해 마련한 잉어 조형물에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국운 상승 등을 바라는 시민관광객들의 메시지가 잉어의 비늘로 달리고 있다. 이서영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서영의 다른 기사보기

1 Article

강릉 국제 우호도시 강릉단오제를 맞이해 잇따라 방문

평창동계올림픽 빙상도시 강릉 홍보

(아시아뉴스통신=이순철기자)

기사일력 : 2017년 06월 31일 17시 37분



29일 강원 강릉시는 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2017 강릉단오제 기간에 방문한 필리핀 까비테주 인당시(시장 페르펙토 피델, PERFECTO V. FIDEL)와 국제 우호교류 체결 협약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강릉시청)

강원 강릉시의 우호도시인 태국 치앙라이시, 필리핀 까비테주 인당시 등 강릉시와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의 대표단이 강릉단오제 기간중에 잇따라 방문해 강릉단오제를 관람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29일 지난 2015년 우호협력을 맺은 이래 두 번째로 강릉을 찾은 쿤완 차이 치앙라이 시장단은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및 신통대길 길놀이와 단오현장체험을 통해 강릉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커피공장과 커피박물관을 견학한 후 커피바리스타를 만나 커피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31일에는 강릉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수업을 참관한 후 황재남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양 도시의 교육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29일 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2017 강릉단오제 기간에 방문한 필리핀 까비테주 인당시(시장 페르펙토 피델, PERFECTO V. FIDEL)와 국제 우호교류 체결 협약식을 갖고 공동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우호도시를 맺은 필리핀 인당시와는 민간인 차원에서 지난 2003년부터 강릉시 SCU 봉사단체가 인당시의 i-home(사회복지협의회)과 함께 연결하여 집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지난 2012부터는 강릉시 의치한약연합회, 필리핀 의료봉사단, 강릉시미용지부, 안경협회 강릉분회 등 연합으로 의료봉사도 함께 지금까지 실시해 왔다.

한편 강릉시는 이번 단오제 기간 중 강릉을 찾은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 상생협력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홍보는 물론 국제교류를 점차적으로 강화·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두 도시 간 우호교류 체결을 계기로 향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도시별 특징을 살린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한국 전통문화 매력에 빠졌다 강원도민일보

kado.net

단오제협 300여명 사전 신청
방문객 "최고의 관광지" 호평

이시원 2017년 06월 01일 북양실



▲ 외국인 단오제협 참가자들이 단오문화관에서 강원단오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축제인 강릉 단오제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가장 대표적인 한국 전통축제인 단오제의 세계화에 외국인들이 견인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강릉단오제 프로그램 중 '외국인 단오제협'과 '강릉 단오제 축제 트래블 버스'에는 각각 외국인 300여명이 사전 신청을 했다. 개별 여행자들도 곳곳에서 단오제협을 돕고 있어 단오장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31일 단오곳을 관람한 장 패럴(Jan Paral, 39 미국) 씨는 "강원도에 여행을 왔다가 강릉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해서 왔다"며 "한국의 옷을 식물이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무척 좋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친구들과 단체로 한국 체험을 한 베트남 유학생 탕(tang, 21) 씨는 "축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데도 잘 정돈돼 있어 놀랐다"며 "강릉단오제는 한옥이나 고궁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역동적인 생활상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최고의 관광지"라고 즐거워했다.

해외공연단도 단오제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말레이시아 공연단원 존(John) 씨는 "신동대길 길놀이 군무(群舞)에 참가한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며 "젊은이들이 전통문화를 즐기는 것이 특히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서영 srachi1@kado.net

[금요칼럼]강릉단오제와 동계올림픽

이종섭 시인

오피니언 | 금요칼럼 | 2017-6-2 (금) 19면



강릉단오제는 '신비한 축제'다. 단오제가 열리는 동안 강릉은 하나의 거대한 신기루로 변한다.

어디선가 사람들은 꾸역꾸역 쏟아져 나와 파도가 치듯 이리저리 물러다닌다. 그 순수한 자발성과 뜨거운 열기, 그리고 활기찬 역동성은 비할 데가 없다. 5월27일부터 시작돼 이달 3일까지 남대천 일원에서 계속되는 올해 강릉단오제도 어김없이 거대한 신기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축제의 막이 오르자마자 수십만의 인파가 단오장을 가득 메웠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뜨거운 열기는 마치 가마솥 솟구경을 들썩이는 김과 같다.

올해 강릉단오제는

'소망을 담은 열정, 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12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을 펼쳐 보이고 있다. 이 슬로건에는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기간 중 빙상 경기 전체가 열리는 강릉의 염원이 담겨 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수리취떡 2,018개를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고, 대형 철을 잉여 조형물에 2,018개의 메시지를 매다는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단오장 일대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산으로 남겨질 '미소짓고 인사하기 캠페인'도 실행되고 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염원하며 단오장을 누비다 보면 가장 먼저 '자발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 자발성이 동계올림픽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꿈이 이뤄지는 올림픽'이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문제는 이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는 식어도 한참을 식어버렸다.

단오제를 구경하기 위해 부산에서 강릉을 찾은 한 원로 문인에게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구경시켜드리자, 그 원로 문인은 동계올림픽이 강릉에서 열리는지를 처음 알았다고 털어놓으셨다. 심히 놀랐지만 이것이 현실인 것을 어찌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마침 새 정부가 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니 이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관심과 열기를 다시 북돋아 주길 기대해 본다.

강릉단오제는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술한 장치를 간직하고 있다. 신을 모셔오고 다시 보내는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먹물거리, 불거리, 풀길 거리들을 가득 펼쳐놓는다.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가 있고, 질서가 과하다 싶으면 글을 두우는 무질서가 슬쩍 끼여든다.

무질서와 질서의 교차와 혼재는 강릉단오제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강릉단오제가 다른 곳의 '운동장 축제'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단체들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강릉단오제의 이러한 여러 장치와 필요충분조건에 대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낼 것인지, 먹물거리, 불거리, 풀길 거리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충분한지, 너무 질서에만 집중해 축제가 지닌 '무질서의 질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강릉단오제는 동계올림픽의 스승이다.

강릉단오제서 전국 한국무용대회

이서영 2017년 06월 03일 토요일



▲ '제1회 강릉단오제 전국 한국무용대회'가 지난2일 강릉단오문화관에서 열렸다.

강릉예총(회장 박선자)과 한국무용협회 강릉지부(지부장 김의정)가 공동주관한 '제1회 강릉단오제 전국 한국무용대회'가 2일 강릉 단오문화관에서 개최됐다.이날 대회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전문 무용가 등 25개팀이 참가,창작군무,창작독무,전통군무,전통독무 등 4개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다. 이서영

단오제로 문화올림픽 성공 기반 다졌다

강릉단오제 결산
8일간 관람객 101만 흥행
외국인 7만명 축제 세계화

이서영 2017년 06월 05일 월요일



전체 + - 확대 축소

올해 강릉 단오제(5월 27일~6월 3일)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이끄는 기반을 다지면서 올림픽 성공개최 의지 결집, 단오제의 세계화, 전통축제의 내실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8일간 단오제 관람 인파는 101만명으로 집계됐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2년 만에 열린 지난해(113만명) 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한국 최고 전통축제의 위상을 확인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 5만명이었던 외국인 관람객이 올해 7만여명으로 급증하면서 단오제의 세계화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도 더해지고 있다. 외국인 단오제험에 역대 최대 참가자가 몰리고, 해외 방송사 등 외신들이 단오제 현장을 소재로 다큐멘터리 촬영에 나서는 모습도 잇따라 목격됐다. 강릉단오제위원회(위원장 조규돈)와 단오제보존회(회장 김종균)가 내건 '소망을 담은 열정, 올림픽 성공개최' 슬로건 그대로 내년 2월에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올해 단오제에서는 지정문화재 행사는 물론 '제11회 대한민국 탈춤제', 기획공연 '굿 위드 어스'와 '소리극 강릉아리랑', 국외초청공연단의 '월드 패션 갈라쇼' 등 야심작들이 흥행을 이끌었다. 또 2018인분의 수리취떡 퍼포먼스, 2018명의 메시지로 잉어 조형물을 완성하는 이색 이벤트, 동계 스포츠 종목 체험관 운영, 스마일 캠페인 등 올림픽 관련 체험즐길거리 행사들이 즐지어 판을 펼치면서 상승 시너지 효과를 유발했다.

단오제단에서 올림픽 성공개최 및 가뭄 극복을 위한 염원(기우제)이 더해지면서 지역 현안과 함께하는 전통축제를 개최한 것도 크게 주목을 끌었다.

단오제험존에 연일 장사진이 펼쳐지고, 남녀노소 세대를 뛰어넘는 참여와 화합의 장이 펼쳐진 것도 올해 단오제의 큰 소득이다. 반면 단오장 주변 이종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먹거리촌 인근의 쓰레기 더미 적치 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단오제위원회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전통축제 단오제가 세계인들에게 다가서는 디딤돌을 놓은 축제였다"며 "올림픽을 계기로 단오제가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영상)

[KBS] 2017.5.20(화) / 「6시내고향」



6시 내고향 + 구독 598 KBS1 월,화,수,목,금 오후 06:00 · 구독 1,034명



2017 강릉 단오제 - 단오를 대표하는 맛

> 138 등록 2017.05.30. 0 0 펼침



방송일자 2017-04-30



단오 시작 알리는 신주빚기 펼쳐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 봉정과 신주 빚기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오늘 신주 빚기 행렬은 강릉문화원을 출발해, 오전 10시에 강릉시청에서 최영희 강릉시장으로부터 쌀과 누룩을 받은 뒤,
철사당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시민들이 내는 신주미를 거둬
철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제관 등이
술인 등을 태워 신주 단지를 소독하고
무녀들이 부경곳으로 약한 기운을 쫓은 뒤
관노가면극 및 무속악 악사들의 반주에 맞춰
제관들이 쌀과 누룩으로 제주를 빚었습니다.

[MBC강원영동] 2017.5.18(월)
생방송 강원 365 - 강릉단오제가 시작되었다!



[MBC강원영동] 2017.5.28(일)
시간여행 강원- 천년의 몸짓 강릉단오굿



[MBC강원영동] 2017.5.29(월)
생방송 강원 365 - 2017 강릉단오제 특집방송



[뉴스 퍼레이드 강원] 강릉단오제 외국인 참가자 역대 최다 전망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작성일 : 2017년 05월 18일 조회수 : 63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강릉시 남대천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등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 300명 이상이 단오체험 사전예약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 등 해외 4개국 팀의 공연을 매일 한 무대에서 볼 수 있고, 2018인분 수리취떡 퍼포먼스 등 주요 행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라이브로 홍보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초청공연이 예정됐던 중국 2개팀은 사드 여파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 내일 개막

동한표 0 181 Print 글주소

17-05-26



'천년의 축제' 2017 강릉단오제가
내일(27)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강릉 남대천 단오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 E N D ▶
올해 강릉단오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행사, 시민 참여 행사,
민속놀이 행사 등 12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본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오는 28일에는 홍계동 여성황사에서
단오제단까지 영신제와 영신할차가 열리고,
강릉주민들의 길놀이 퍼포먼스
'신통대길 길놀이'가 함께 펼쳐집니다.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단오제단에서는
조전제와 단오굿이 열리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불거리 제공을 위해
굿 위드 어스, 기획공연, 국의 초형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집니다.

(R)천년의 힐링로드, 강릉단오제 개막



◀ A N C ▶

천년의 힐링로드, 2017 강릉단오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첫날부터 다양한 공연·체험 행사가 열려 8일 동안 풍성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홍합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E N D ▶

◀ V C R ▶

화려한 춤사위와 풍악소리에 객석마저 신명으로 들쭉입습니다.

전국의 탈춤을 한자리에 모은 '대한민국 탈춤제'입니다.

장미의 라틴 댄스 선물이 무대를 한껏 밝구면,

북을 치이듯 만아한 우리의 전통 무용이 이어집니다.

강릉단오제 음식의 백미인 단오신주와 수리취떡을 시식하는 자리는 긴 줄이 늘어섰고,

향긋한 향포퓌에 머리를 감으며 액운을 쫓습니다.

◀ I N T ▶ 김병호 김영서 한다름

'가족과 즐기기에 좋고 아이 교육에도 좋고'

2017 강릉단오제가 막이 올랐습니다.

(S/U = 홍합표 기자)

'이번 단오제는 8일간의 일정으로 12개 분야에 걸쳐 71개 세부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내일 오후에는 영신제와 영신행차에 이어 시민들과 어우러진 신동대길 길놀이와 열리고,

신을 모신 29일부터는 료전제와 단오굿이 단오제단에서 펼쳐집니다.

굿을 새롭게 조명한 '굿 워드 어스'와 아리랑을 무대로 옮긴 '소리극 강릉아리랑' 등 기획공연도 마련했습니다.

이탈리아, 태국,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등 국의 공연으로 단오제의 흥취를 높였습니다.

◀ I N T ▶ 김동찬 / 강릉단오제위원회 이사

강릉중앙고와 제일고간의 축구경기전이 3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내년 세계올림픽의 기본비결 유산으로 남겨질 '평화의 댕' '통합의 댕' 건립 협약인도 단오장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G1 뉴스 820] 천년축제 강릉단오제 개막김기태* 기자 (gitae@g1tv.co.kr)

작성일 : 2017년 05월 27일 조회수 : 427

**[앵커]**

주말을 맞아 도내 관광지과 유원지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강릉에서는 천년축제 강릉단오제의 막이 올랐는데요,
첫날부터 구름 인파가 몰려 우리 전통의 멋과 흥을 즐겼습니다.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강릉 단오장에 탈춤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흥겨운 춤사위에 홀린 듯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악기를 팔리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다는 창포물 머리갈기는 단연 인기입니다.

[인터뷰]

"머리도 시원하고 액운도 없애준다고 하니까,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재 있네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가 시작됐습니다.

'천년의 기다림, 세계인의 어울림'을 주제로 다음달 3일까지 12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해 강릉단오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화면전환--

춘천 옛 김유정역에서는 야외 결혼식이 열려 행복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습니다.

허객들의 축복 속에 백년가약을 맺은 5월의 신부는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브릿지▶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의 휴일을 맞아 많은 나들이객들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도심 인근 유원지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인터뷰]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합니다. 여기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요, 지금 빨리 레일바이크를 타고 싶어요."

도내 유명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녹음이 짙어지고 있는 산의 정취를 감상하며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인터뷰]

"결혼하고 7년만에 왔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같이 오니까, 풍경 좋은데서 아주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영동고속도로와 서충~춘천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MBC 강원영동

강릉단오제 사흘째, 관람객 43만 명 찾아투

조회수 0 | 155 | Print | 글주소

17-05-29

방송일자 2017-05-29



강릉단오제가 개막이후

모두 43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END▶

강릉단오제위원회는

지난 27일 개막한 이후 어제(29)까지 사흘 동안

43만 명이 날대천 단오장을 방문해,

지정 문화재 행사와 다양한 공연,

영신행차와 신룡대길 걷놀이 등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30)은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농악경연대회,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

조천제와 단오굿, 씨름과 그네 등 민속놀이,

전통주 선별대회 등이 열립니다.



<앵커 멘트>

오늘은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인데요,

강원도 강릉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보람 기자! 올해 강릉 단오제가 더욱 풍성하게 마련됐다고요?

<리포트>

네, 단오제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전통민속축제인데요,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향한 강릉의 열정이란 주제로 더욱 다채롭게 열립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단오제가 열리는 축제장은 한산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문을 닫은 상점들도 조금 있으면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음력 5월 5일인 단오날이지만, 강릉 단오제는 지난 27일 개막해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은 12개 분야, 71개 종목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강릉단오제의 주신을 제단에 모시는 영신 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도 이어지면서 축제가 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36회 KBS 사장기 농악경연대회와 제24회 강릉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창포 머리 감기와 그네뛰기 등 전통놀이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오제는 평창올림픽 개최 8개월을 앞두고 열리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2018인분의 수리취떡을 전시하고, 2018명의 메시지로 완성된 잉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강릉단오제는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며 더욱 풍성해진 단오제는 다음 달 3일,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강릉 단오제 현장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리'단웃날' 맞아 강릉단오제 결정



남) 음력 5월 5일 '단웃날'을 맞아 강릉단오제가 결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 전통문화 공연과 놀이가 펼쳐진 가운데 2018 동계올림픽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E N D ▶

◀ V C R ▶

국사성황을 모신 단오제단.

'단웃날'을 맞아 온유일 국판이 열린 가운데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농악대가 그동안 갖고 닦은 농악 가락을 흥취에 실고,

관객들은 장단에 맞춰 신명이 절로 납니다.

외국 공연팀도 이국적인 춤과 음악으로 보다 세계화된 단오에 동참했습니다..

땅에 메치고, 튀깁고, 뒹치고...

삼박을 단단히 동여맨 건강한 군인들이 펼치는 씨름은 초여름 더위까지 날려버립니다.

그네에 올라탄 여인은 마을과 다르게 그네가 높이 오르지 않자 수줍은 미소를 띠고,

할아리에 화삼을 던져넣는 마을별 투호 대회는 평평한 음원 속에 짜릿할마저 선사하고 있습니다.

(S/U = 홍한표 기자) '우리나라 4대 명절이자, 일 년에 양기가 가장 센 단웃날을 맞아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단웃날'에만 20만 명이 들리는 등 나흘 동안 모두 63만 명의 관람객이 단오장에 다녀갔습니다.

◀ I N T ▶ 황인서 강원민 / 미국 뉴욕 '고국 와서 할 모르면 단오 체험하니 좋거워'

무엇보다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8명분의 수리취떡을 만들어 나눠 먹는 등 동계올림픽 홍보의 장도 되고 있습니다.

◀ I N T ▶ 최명희 / 강릉시장 '우리의 전통 깊어져 동계올림픽 홍보할 것'

천년 축제 강릉단오제는 6월 3일까지 날대천 단오장과 단오문화관에서 절정의 볼거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 E N D ▶



[G1 뉴스 820] 단오날 강릉단오제 '성황'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작성일 : 2017년 05월 30일 조회수 : 492

[앵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날인데요,

지난 주말 개막한 강릉단오제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원하며 더욱 풍성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강릉단오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경식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stand-up▶

네, 저는 지금 강릉 남대천단오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단오장에서는 강릉사투리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막 나흘째인 오늘까지 6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는데요,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열원을 담아 더욱 풍성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리포터]

오늘은 단오굿을 비롯해 씨름과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와 무언가면극인 관노가면극 등이 펼쳐져 볼거리
리를 선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빛은 2018인분의 대형 수리취떡을,

시민과 관광객들이 나눠 먹는 퍼포먼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오제위원회 측은 오늘 하루에만 2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왔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올해는 단오굿 등 지정문화재 행사와 해외초청 공연 등 12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주요 공연과 행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홍보돼 해외 언론과 외국인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포머리감기와 단오부채 그리기 등 유료 체험 프로그램에도 하루 천명 이상씩 체험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단오제 마지막 날인 오는 3일 오후 4시에는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강릉중앙고와 제일고간의 축구경기
전이 열리고,

밤 9시부터는 대미를 장식할 불꽃놀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주최측은 폐막까지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단오장에서 G1뉴스 최경식입니다.

흥겨운 가락 속 다채로운 볼거리...신명 나는 강릉 단오제

조재근 기자 jkcho@sbs.co.kr 작성 2017.05.31 08:14 조회 199 프린트 글자 크기

<영차>

어제(30일)가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였습니다. 국내 최대 단오 행사고 세계 무형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가 요즘 한창입니다.

조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흥겨운 농악 가락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면 관객은 저절로 보드게 장단을 맞춰갑니다.

브래판에서는 남자들의 한판 대결이 치열합니다. 근인과 강할 간의 자존심 대결, 흥소 대신 프르프를 걸고 프거운 승부를 걸칩니다.

급게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네들은 마을 대항 부포 시합을 벌입니다. 화살 하나하나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승미/단오행사 참가자 : 한합도 되고 스포레스 풀리고 미처 몰랐던 이웃주민도 알고 정말 좋습니다.]

10m도 넘는 그네 줄 위에서 있는 볼것 없을 구름입니다. 흥원은 뜨겁지만 쫓겨한 솟구치지 않습니다.

강릉단오제는 대관령의 신을 모셔와 다 같이 즐기는 축제와 단오 세시 풍습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굿장에 모여 집안과 가족의 무탈을 기원하고 신에게 올리기 위해 시민들이 내놓은 쌀도 술과 떡을 빚어 함께 나눠 먹기도 합니다.

[장원평/재미고르 :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선택권도 있고]

장포물에 머리를 감고, 단오빔을 입고 부처를 그리며 무더운 여름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이서연/유지원생 : 부채 꾸미고 있어요. (부채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덕을 퍼 할 거예요.]

지난 나흘간 관람객은 63만여 명. 다양한 전통과 해외 민속팀 공연 등 71개 프로그램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라인뉴스] 유네스코 문화유산 '강릉 단오제' 성황

입력 2017.06.30 (07:49) | 84

라인뉴스

표준 화질 | 고화질 | 키보드 컨트롤



좋아요 0 | 댓글 0

강릉단오제 행사 풍성...다음 달 3일 폐막

입력 2017.06.31 (17:19) | 수정 2017.06.31 (17:28) | 46

뉴스 6

표준 화질 | 고화질 | 키보드 컨트롤



좋아요 0 | 댓글 0

MBC 강원영동

강릉단오제 7일째, 누적 관람객 83만 명

총화표 0 154 Print 글주소

17-06-02

방송일자 2017-06-02



강릉단오제가 폐막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도 흥성한 전통공연과 국외 초청 공연,
민속놀이 등이 펼쳐졌습니다.

◀END▶

단오제 주신인 국사성황을 모신 단오제단에는
조전제와 단오굿이 진행됐고,
관노가면극, 농악, 월드 패션 갈라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하루 7만 명이 단오장을 찾아
누적 관람객은 8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폐막일인 내일(3)은
사람들이 공연대회와 농악 공연 등이 열리고,
강릉종합경기장에서는 중앙고와 제일고의
축구 경기전이, 단오장에서는 오후 9시에
마지막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기획-R)강릉 단오제 '결정'

구분 | 문화교육(이상현 기자)

등록일 | 2017-06-02 오전 9:13:59 [03:30]



<앵커> 남) 지금 강릉에서는
세계적 축제 가운데 하나인
강릉 단오제가 한창인데요.

여) 네 그래서 오늘 헬로tv 뉴스는
이렇게 강릉 단오제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동 보도국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남) 지난 27일 개막한 강릉단오제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축제 분위기도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축제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제목 : 강릉 단오제 '결정'
좌상단 : 단오제 분위기 '결정'

강릉 단오장 아리마당이
전통 혼례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모관대와 족두리를 쓴 한 쌍의 부부가
전통 방식에 맞춰 혼례를 치릅니다.

연지 곤지를 찍은 필리핀 신부는
모든 것들이 새롭기만 합니다.

[인터뷰 : 라쿠엘 필리핀]
"필리핀에서는 결혼식을 서양식으로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한국 전통혼례 방식을 직접 해보니 즐겁고 재미있어요."

단오빔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축제장 곳곳을 누빔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창포물에
직접 머리를 감아보기도 합니다.

[인터뷰 : 조세민 평창군 대화면]
"시원하고 머릿속에 있는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영동]강릉단오제 8일간 일정 마치고 오늘 폐막

총화표 0 82 Print 글주소

17-06-03

방송일자 2017-06-03



강릉단오제 8일간 일정 마치고 오늘 폐막

천년의 힐링 로드 강릉단오제가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올해 단오제는 12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이 남대천 단오장과 지정 행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전통 연희와 무용 공연, 농악과 관노가면극이 펼쳐져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해외 공연팀 초청 공연 등으로 보다 세계화된 단오제를 펼쳐냈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동계올림픽 홍보도 이뤄졌습니다.

<부록> 8.

— 2017 강릉단오제 —

신주미 봉정 접수자 명단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강남동>	김남일	김영철	남규열	변우용	유경순
강규선	김남진	김오기	남동식	서백석	유순걸
강옥자	김남현	김오현	남원현	석영근	유재홍
강임모	김동국	김옥순	노영임	손금봉	윤기열
강화춘	김동기	김원기	라병순	손명수	이광희
고종문	김병성	김윤기	문윤자	손학열	이기윤
곽민선	김병일	김윤재	문태기	송금자	이길용
곽종수	김복경	김은희	민채금	송춘화	이대섭
권봉자	김복자	김응래	박경희	송향운	이대섭
권순남	김상길	김재벽	박광종	신각선	이병호
권오범	김상남	김정모	박명자	신애자	이상기
권헌자	김상열	김정옥	박민철	심봉식	이상범
권혁수	김상현	김종배	박병성	심용섭	이상복
권황자	김석래	김종열	박보양	심의봉	이석규
김건석	김선경	김종월	박분녀	심재호	이선우
김경수	김성범	김종율	박상돈	심정보	이선자
김광수	김성열	김종표	박용길	심찬금	이성옥
김규남	김순래	김종화	박용우	안상수	이송원
김금재	김순옥	김주천	박정기	안성기	이순남
김기영	김승기	김지호	박주복	안영신	이승민
김기진	김승남	김진동	박진희	양창석	이승순
김길수	김시정	김진만	박찬웅	엄부영	이승훈
김남구	김연희	김진석	박학근	용석중	이용진
김남규	김영래	김창남	방정숙	우성만	이원준
김남규	김영수	김창호	배광식	우완수	이인길
김남근	김영식	김형기	배동석	원석진	이정국
김남운	김영집	김화자	변덕용	유경순	이종열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이중운	정연복	최경인	최중봉	고동균	김무하
이주행	정연우	최관식	최중성	고동수	김문환
이주호	정영식	최국자	최중윤	고동주	김문환
이주호	정인자	최규제	최진천	권근형	김병연
이지연	정인철	최근휴	최찬건	권혁국	김복실
이철준	정창규	최돈명	최찬준	권혁삼	김상수
이철준	조거현	최돈성	최창순	권혁주	김상수
이호영	조계현	최돈연	최창식	김감옥	김선주
이희숙	조군원	최돈연	최채옥	김개동	김선주
인재선	조규상	최돈영	최청자	김경수	김선희
임정숙	조규영	최동익	최항철	김경수	김성래
장옥란	조규옥	최동진	한배근	김경춘	김순남
장우석	조규춘	최범규	한승우	김경춘	김순문
장형두	조복현	최병철	함만성	김계월	김순호
전덕권	조성목	최상백	함수철	김국희	김승기
전명화	조성열	최성권	함영기	김금자	김연옥
전병권	조성혁	최순옥	함영달	김남용	김옥선
전인성	조양현	최옥희	함정호	김남익	김용기
전인수	조영자	최왈순	함중호	김남철	김용형
전정자	조재현	최용숙	함현아	김대기	김용호
전호집	조종현	최용철	허병호	김돈기	김인자
정금자	조해진	최윤규	홍인숙	김동문	김일권
정명화	조혁규	최재관	홍재호	김동진	김장경
정병용	진호석	최정인	황길남	김동진	김재기
정석	차상훈	최정자	황주용	김동화	김정기
정성원	차순자	최종구	<강동면>	김등표	김정연
정순복	차주홍	최중두	강세호	김무진	김정태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김중수	박치진	심부교	이기백	임재준	천명순
김준기	배선녀	심영현	이기철	임정빈	천성철
김진복	배한길	심예섭	이덕수	임종만	천성호
김진삼	백시우	심창수	이돈진	임종순	천순영
김창구	사소란	심홍섭	이병우	장기네	천정숙
김창하	서석부	안창락	이보배	장명중	천진옥
김철기	서영자	엄창섭	이석중	장명화	천필은
김해기	석하기	오서우	이승재	장석동	최강현
김해동	석형기	오세철	이영복	장세호	최금단
김호성	석홍기	원광식	이옥희	장연옥	최금옥
김홍출	선상영	원장청	이정배	장옥녀	최돈숙
김효남	선시영	원태영	이정숙	장완수	최명자
노진일	소윤영	유기상	이정형	장익환	최문헌
민태식	손공락	유도선	이종길	장춘택	최선백
박경환	손발순	유연실	이종일	정강음	최성근
박근만	손장락	유효상	이주동	정복희	최승금
박길수	송춘월	윤금자	이진왕	정승민	최승혁
박덕규	신금순	윤명환	이창우	정희덕	최옥남
박상복	신기란	윤복남	이청우	조성돈	최종월
박순자	신남경	윤봉학	이춘식	조성일	최효석
박영생	신남경	윤현덕	이춘우	조성태	한분녀
박용복	신숙승	윤효식	이충섭	조용국	한용섭
박용하	신주태	이강형	이태환	조정란	한우섭
박옥초	신충승	이경자	이학진	주남숙	함영관
박중윤	신탉승	이규성	이현석	주옥춘	홍대윤
박중훈	심남섭	이규용	이호종	진효철	홍대헌
박철용	심무은	이규호	이효자	천대영	홍분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홍숙향	권혁주	김승기	김종환	박연호	양재숙
홍영준	권혁진	김승태	김지아	박용삼	어명수
홍일호	김 인	김승호	김진옥	박용완	엄종철
홍정의	김각기	김승희	김진태	박재천	연말순
홍현립	김경자	김영남	김진형	박정란	오경현
황부동	김근배	김영숙	김철수	박종식	윤형기
황정샘	김근희	김영자	김태수	백원기	이건중
황태원	김금자	김오영	김택규	백정우	이경희
<경포동>	김기성	김옥경	김학무	선주만	이교민
강명근	김남훈	김용래	김혜영	손경목	이금순
강미숙	김만석	김우목	김홍기	손봉수	이기봉
강선영	김맹기	김우석	김훈희	송수길	이기승
권순구	김명규	김운래	남기철	송영근	이길성
권순범	김명래	김인구	남기태	송영진	이대근
권순철	김복학	김장희	남응천	송의호	이명희
권순호	김부희	김재로	문상남	송현호	이석진
권순희	김삼희	김재신	민대식	신준석	이석함
권영예	김상규	김재용	박경자	신학승	이승덕
권오진	김상기	김재천	박금자	심광섭	이은광
권혁기	김상우	김재훈	박기서	심규태	이정규
권혁돈	김석기	김전수	박길동	심상훈	이종태
권혁민	김선열	김정숙	박도경	심승석	이종훈
권혁봉	김선자	김정심	박복균	심승석	이주산
권혁상	김선희	김정현	박삼량	심재길	이창수
권혁송	김수남	김종구	박서윤	심재시	임금택
권혁시	김수한	김종탁	박시윤	심향화	임성용
권혁윤	김숙희	김종학	박양길	양국찬	장동이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장석수	최강산	함종금	김봉용	박경수	오창기
장효열	최경길	허병욱	김사갑	박경자	오현일
전봉구	최규환	홍기표	김삼영	박동주	우병항
전영민	최근호	홍문식	김송립	박문균	유경미
전용태	최길억	홍선녀	김영기	박민수	유성환
전우집	최남순	홍선희	김영자	박삼기	유현성
전인집	최대규	황선옥	김영팔	박영태	윤영범
전종구	최대식	황일남	김영환	박옥량	이록성
전진하	최돈자	<교1동>	김용욱	박용철	이병목
전찬수	최돈중	강도희	김원기	박종국	이석구
전찬주	최동규	강릉수홍	김원래	박종록	이영순
전형집	최두식	강일남	김원수	박종표	이옥희
정석은	최선길	강일성	김원숙	박호규	이종휘
정의구	최어순	강지용	김유선	배복화	이채성
조결환	최영선	강찬호	김이매	변형복	이춘섭
조규건	최영선	고위연	김자현	서원	이태원
조규섭	최옥기	공광배	김재현	소찬영	이학연
조선비	최옥분	곽상신	김정경	신만복	이현종
조장현	최장순	권순현	김정용	신사생	이혜숙
조정원	최재호	권태진	김종율	신승희	이화옥
조치범	최정훈	김구래	김진길	심교명	임왕규
조해준	최종옥	김기동	김진수	심상천	장경자
주영건	최근집	김기만	김진태	안동준	장승수
주재현	한대식	김대수	김찬택	안연정	장옥
차기홍	한상남	김대승	김현숙	안연희	전관우
차주상	한지수	김만수	남동근	안장춘	전상용
차주일	함영만	김명기	문매월	안혜정	전인집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정근환	최옥규	황추남	김병남	김청남	백봉기
정도교	최옥자	황현호	김병찬	김탁영	별미식당
정문교	최운규	<교2동>	김복동	김태노미	설증환
정봉교	최윤미	강경호	김상순	김태훈	손가네 생삼겹
정수교	최윤희	강계희	김상순	나희숙	손병준
정홍교	최정자	강석진	김서라	문송녀	신봉훈
조규목	최종원	강인모	김성훈	문영기	신숙현
조규옥	최종천	강희문	김숙남	박계동	신순남
조금현	최종호	고광래	김애숙	박동우	신오미
조수현	최찬화	고대성	김영광	박민자	신용오
주문건	최춘경	공병호	김영철	박상서	신용오
주민일동	최현수	권영규	김영하	박상오	신재우
(주)부건	한기옥	권오주	김영화	박상용	심귀섭
진덕수	함남식	김경수	김영화	박상진	심남섭
진석영	함석현	김관형	김오기	박석재	심상기
채봉서	함순자	김규만	김옥희	박수규	심상해
최계남	함희완	김규만	김은주	박수연	심옥선
최규만	홍금순	김기동	김인태	박숙련	심현석
최기철	홍무표	김기석	김재만	박승원	심현정
최남선	홍미경	김남수	김정자	박영민	안선자
최문자	홍석천	김남홍	김지혜	박용정	안영자
최병찬	홍성택	김남희	김진구	박재명	안정자
최복규	홍재흠	김덕기	김진남, 권태웅	박종시	엄재용
최승구	홍종호	김덕만	김진영	박호균	엄정란
최승권	황병노	김덕만	김진홍	박호균	염우현
최연우	황병익	김동예	김찬기	박황	오금옥
최영근	황원표	김범수	김천분	박홍석	유공재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유길순	장희재	최명자	홍성복	김남득	김용녀
유미영	전귀환	최상규	홍성인	김남준	김용수
유탉영	전남표	최승준	홍성필	김남혁	김원기
유현진	전병두	최용헌	홍종집	김대기	김원종
윤재도	전부권	최원선, 최의선	홍중기	김대옥	김장기
윤종근	전상원	최윤길	황병재	김돈중	김재원
윤중재	전선녀	최윤석	황재성	김동수	김재형
이근현	전우찬	최윤주	<구정면>	김명숙	김종근
이근현	전응택	최을철	강대경	김목기	김종태
이명호	전인철	최인순	강대용	김무영	김준일
이병국	전종인	최인현	강대집	김미자	김진녀
이상천	정강화	최정규	강성복	김범기	김진용
이수홍	정래운	최정석	강성원	김병운	김진호
이숙희	정민교	최종욱	강성철	김병철	김찬호
이승민	정병동	최종철	강재남	김보성	김창섭
이영주	정병문	최창순	강희문	김봉래	김창중
이옥순	정순자	최현규	구남오	김사정	김춘기
이정균	정의섭	최호규	권동우	김선대	김충래
이진영	정정희	한만희	권영자	김성기	김태복
이창석	정호철	한영복	권오덕	김성준	김태정
이창희	조규범	한용재	권옥주	김수철	김태훈
이춘성	조이현	함동기	권태정	김시덕	김평유
이혜자	진영길	함영임	권태현	김시목	김평화
이호진	최규문	허남복	금석호	김시영	김형남
장경자	최근순	허병호	김경남	김신복	김형철
장종석	최돈정	홍동표	김경수	김양중	김화자
장철호	최돈홍	홍선표	김남근	김양희	문중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박경동	방만호	어재완	이영길	정덕교	최만길
박관동	배순희	엄기천	이영하	정명자	최무창
박교근	백수영	엄석현	이인식	정명화	최상순
박균용	변응섭	엄양섭	이재하	정숙자	최석관
박기동	서기동	유성수	이종섭	정순교	최순남
박낙희	서기석	유옥현	이종식	정승교	최순택
박영복	서순원	유청운	이종협	정식화	최승연
박용관	서일석	윤기중	이지연	정연각	최영자
박용근	손덕규	윤영학	이찬균	정옥녀	최은영
박용만	손상규	윤영희	이창열	정완화	최재규
박용섭	손순금	윤용식	이춘근	정의철	최종숙
박용승	손종호	윤종목	이태근	정의훈	최종윤
박용업	손호만	윤종암	이형용	정재철	최종훈
박인동	송대수	윤종일	임남형	정준화	최중희
박인자	송진호	윤종희	임성규	정춘화	최태선
박재동	신봉호	윤홍용	장기욱	정호규	팽양숙
박재두	심상영	이건길	장창환	조규동	함무중
박정숙	심춘옥	이건용	장현오	조규인	허윤식
박종근	심한구	이금규	전오식	조승현	홍귀남
박종식	안상렬	이무희	전원우	조영관	홍순화
박죽서	안세정	이미자	전인돈	조종현	황남철
박찬균	안혁대	이병섭	전인섭	주효식	황선근
박창호	안혁수	이부창	전인오	최남길	황순해
박춘식	양희용	이선자	전재용	최돈선	황승근
박팔균	어기식	이순례	전제국	최돈천	황영준
박현보	어옥희	이승용	전춘명	최동순	<내곡동>
박혜숙	어장식	이연옥	정건화	최두규	강근식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강대선	김선옥	김호정	선형란	이금순	전미옥
강상표	김설기	남기호	송민수	이금영	전영기
강진국	김수갑	남우리	신승대	이기수	정관수
강형구	김순남	노미숙	신재철	이기원	정교
강효식	김승동	문한구	신준철	이기현	정대훈
고진석	김시남	박건표	신철원	이동환	정선교
권오명	김영식	박경선	심낙중	이만섭	정재호
권혁수	김웅기	박근선	심명숙	이만천	정정순
권혁환	김웅기	박다교	심시보	이미경	조미옥
김 박	김을기	박명신	심인교	이민준	조순남
김경애	김일동	박범자	심재헌	이상집	주석산
김광열	김정남	박병하	심종택	이서영	주영중
김귀자	김정수	박봉	심종혁	이석곤	차정옥
김기철	김정환	박용국	심형섭	이승섭	최길남
김남권	김종임	박용만	심홍섭	이영우	최덕순
김남섭	김종화	박용복	안상영	이원향	최돈화
김남훈	김주석	박용한	안영희	이재록	최만옥
김달현	김주연	박재행	안은영	이주영	최상철
김동수	김주현	박정순	엄미숙	이향우	최상현
김동연	김중호	박정자	엄병천	임규만	최씨
김동주	김지숙	박주학	유송창	임복순	최아정
김래현	김지윤	박창식	유영식	임봉연	최웅근
김래호	김진규	방찬수	윤석주	장미자	최웅근
김명숙	김형자	백선헬	윤석현	장석순	최웅철
김명춘	김형학	변상기	이건태	장용택	최종우
김봉덕	김혜란	서병영	이경자	전기혁	최종옥
김삼정	김혜원	서창순	이금단	전명숙	최종운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최중집	고춘희	김대화	김영진	민용자	백영숙
최혜성	곽병철	김도경	김영희	박경숙	백은희
탄정호	곽순옥	김도연	김옥경	박경자	변은숙
한광수	구송애	김동빈	김옥자	박관옥	서다분
홍명기	구춘희	김동선	김용수	박광철	성경숙
홍소영	권복남	김명희	김용희	박백영	손미라
홍순길	권영신	김미애	김은영	박성남	손이수
홍순성	권영진	김미연	김은자	박성자	손이지
홍순창	권영진	김미정	김은정	박세란	송미녀
<성덕동>	권영찬	김민선	김은희	박순임	송영운
김택근	권오광	김병국	김인숙	박영남	신경미
강 수	권오순	김복주	김정숙	박영순	신남식
강석란	권오임	김복진	김정자	박은란	신미경
강성덕	권오화	김상운	김정희	박은희	신수미
강성호	권혁순	김선화	김진달	박정숙	신순희
강성호	권희주	김성수	김진복	박종병	신영희
강옥선	김경미	김성순	김채원	박주엽	신일선
강점봉	김경성	김수년	김해순	박지희	양기범
강희분	김경숙	김숙희	김혜숙	박춘명	어영식
고광열	김경숙	김순남	김홍식	박태진	어정임
고광진	김경자	김순미	김효녀	박현순	엄용복
고기환	김경찬	김순복	김희숙	박호진	엄우진
고루디아	김규리	김순자	남경희	박화자	엄은자
고선영	김규성	김순희	남명옥	방금옥	오경애
고순덕	김금화	김영미	노인희	방선숙	오영숙
고순옥	김남식	김영순	맹나연	방영자	오형옥
고재현	김남철	김영자	문경선	배문준	원소정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원중숙	이영자	장아정	조벽환	최인자	강춘자
유동아	이영희	장정남	조성창	최일형	강태종
유만준	이옥자	장준석	조순덕	최임순	강태항
유현숙	이용수	장준섭	조승자	최정자	고봉주
윤금채	이용호	장춘자	주옥선	최정희	고재인
윤혜원	이윤섭	장하숙	지현숙	최종봉	공민순
윤화자	이은자	진낙진	최계림	최중수	공영수
이경자	이점란	전남숙	최길영	최종찬	곽병열
이경희	이정희	전만수	최남숙	최종희	권승옥
이금주	이종목	전명옥	최도영	최진향	권승호
이기만	이중옥	전미령	최돈섭	최행규	권영준
이말연	이차우	전미선	최돈희	최홍순	권영채
이명숙	이창섭	전상남	최또순	표문숙	권오규
이명숙	이춘길	전성혜	최석길	하혜숙	권오문
이미자	이쾌식	전순연	최수옥	한 숙	권오숙
이미정	이한영	전영희	최순옥	한상준	권오훈
이병순	이혜심	전은희	최순자	한평예	권옥기
이병용	임미경	전재농	최승봉	한학동	권혁관
이복섭	임영숙	정남식	최승삼	함영선	권혁울
이복자	임영희	정동주	최영미	홍관자	권혁철
이봉순	임옥자	정미영	최영숙	홍미정	권혁춘
이상동	장귀분	정용자	최영자	홍성모	권희춘
이상용	장남순	정원만	최영주	홍성한	김경일
이성모	장덕순	정의철	최영희	홍종학	김계목
이성미	장돈균	조계화	최옥순	황계월	김계순
이성숙	장성호	조규옥	최용길	황윤화	김군자
이성자	장승무	조명자	최원석	<성산면>	김규환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김근현	김순자	김창남	박종진	심호산	이재근
김남균	김순태	김천기	박준각	안희각	이정자
김남길	김안영	김철기	방창열	양미영	이종복
김남순	김오선	김태영	배헌영	양은순	이종섭
김남식	김용옥	김학래	법률사스님	엄기만	이종환
김남진	김운기	김한규	변주현	엄영섭	이준용
김남현	김원기	김형기	서창석	엄현옥	이창숙
김대유	김월성	김호정	선복순	오병선	이현재
김돌문	김윤기	김홍주	손병숙	유덕열	장성열
김동래	김응주	김홍남	손성호	유옥자	장충식
김동시	김일기	돈가스	손창순	윤기철	전규진
김동욱	김장기	막국수	수랏간	윤영순	전상문
김동환	김장옥	박계월	신경선	윤옥녀	전상진
김마일	김장자	박금자	신대교	윤종철	전석산
김만옥	김재만	박기석	신미야	이광섭	전순진
김명기	김재익	박명동	신영화	이광수	전영식
김미래	김정규	박병관	신일선	이무성	전윤자
김병두	김정기	박봉수	신춘자	이봉구	전창길
김병수	김정인	박부원	신향선	이상국	전춘학
김봉규	김중하	박순자	신효순	이석봉	정관철
김봉래	김진걸	박영문	심상호	이석현	정연생
김상동	김진삼	박옥연	심상희	이순호	정연옥
김상섭	김진열	박용철	심선희	이순희	정영교
김성곤	김진철	박월자	심재남	이시우	정영미
김성래	김진춘	박재택	심창석	이신원	정영태
김세중	김진택	박종구	심창식	이양섭	정의원
김숙인	김찬기	박종일	심춘식	이유포	정태교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조명환	최아현	함광호	김상철	박부균	이용필
조수현	최애지	함봉식	김상태	박종국	이자섭
조운근	최옥규	함석호	김성태	방승준	임인규
조춘형	최옥자	함순복	김순량	방영일	임재영
조충현	최옥화	함연호	김영길	방훈업	정갑손
조평생	최완순	함영근	김옥너	손월열	정민호
주희너	최원석	함영익	김완호	손재찬	정의윤
진명희	최은규	함일성	김용옥	송묘금	정정덕
초원식당	최인자	홍경표	김인식	송정목	정진현
최경규	최정아	홍순봉	김정기	신동선	지기용
최광서	최종경	홍순자	김정수	신홍승	채태길
최규민	최종국	홍재길	김정오	심상순	최경순
최규승	최종민	홍종근	김정자	우영길	최남영
최규종	최종복	홍종옥	김종대	우원호	최돈권
최근호	최종철	홍종화	김종립	우호근	최병열
최난집	최종필	홍철길	김종호	원태일	최사길
최남규	최주상	홍홍표	김진구	유병용	최상욱
최돈원	최주섭	황상근	김진복	윤상기	최일봉
최돈자	최철순	황순모	김진호	윤재남	최채희
최돈형	최해규	황해진	김창식	이갑수	현대용
최명규	최현길	<옥계면>	김창진	이광주	홍윤기
최문철	최혜자	강봉춘	김태수	이동섭	<옥천동>
최병호	최호식	강성태	김홍기	이동우	강선희
최숙자	최홍규	김근하	박대성	이명수	고민용
최순기	하삼동	김남석	박동근	이봉휘	권민주
최승복	한규설	김복영	박동석	이상만	권성훈
최승용	한달중	김봉기	박두명	이상백	권오남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권정순	김충식	박조균	윤종해	정연화	최정용
권혁방	김태래	박종혁	윤중서	정용식	최종숙
권혁전	김태린	변숙자	윤철민	정용화	최종윤
김경래	김태복	선병숙	이미선	정정애	최중집
김경철	김태훈	선의여	이미화	정준철	최찬홍
김광섭	김풍호	성명	이상연	조경진	최창복
김남훈	김학길	손승래	이선자	조관형	최태철
김도현	김향기	손재영	이선희	조범기	최필규
김문영	김형노	송재봉	이성만	조수행	최형순
김복희	김호선	신근정	이양자	조영운	최형철
김석재	김홍자	신상도	이연복	주만근	최호걸
김선자	김홍권	심상백	이용각	주민자치위	최화순
김성한	김홍길	심영시	이이송	주혜집	통장협의회
김승기	도성대	심재식	이재봉	진명규	표복동
김영숙	문복환	심춘옥	이재철	차준식	한명호
김원기	박광천	안상태	이정임	최구순	한봉수
김유신	박두균	어성진	이정자	최돈호	한상근
김윤이	박막래	엄영자	이태호	최말례	한춘희
김인호	박병찬	엄우진	이현	최병성	허수복
김재정	박원철	엄현용	이형섭	최봉용	허창인
김재호	박원철	우종근	장순남	최상규	홍금옥
김정	박응봉	유경숙	전상길	최순자	홍덕표
김종남	박인숙	유순철	전순옥	최승진	홍성욱
김종욱	박재면	유형용	전영환	최승한	홍성태
김진국	박정숙	윤기중	전용칠	최완순	홍순자
김찬민	박정숙	윤명진	전재춘	최일용	홍윤자
김창기	박제만	윤봉규	정병선	최재철	황상열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중앙동>	김만호	김정모	박용숙	윤연춘	이희배
강석구	김미래	김정수	박정철	윤용택	임광수
강주현	김미진	김정희	박종성	이건수	임기웅
고옥순	김민영	김종	박준선	이남준	임병무
권순동	김복남	김종관	박현아	이동훈	임성수
권오문	김상석	김종관	방금순	이병제	임영기
권오순	김순희	김종우	방금순	이상만	임중규
권오재	김승기	김종한	손병길	이상욱	임홍규
권오휴	김영만	김진건	송영훈	이상춘	장금석
권춘자	김영복	김청래	승인섭	이성수	장기호
권혁인	김영세	김춘자	신승일	이승걸	장명자
김국	김영순	김태균	신승춘	이승용	장서현
김경옥	김영태	김현아	신승혁	이승희	장재봉
김귀연	김옥동	나용운	신윤재	이신호	장태용
김기용	김옥래	노승현	신재인	이영기	전역찬
김길수	김옥이	문춘희	신평선	이영자	정달란
김남선	김용산	문현주	심기섭	이용란	정명자
김남수	김옥남	민정자	안석남	이원일	정문철
김덕훈	김운홍	박경순	안혁춘	이유삼	정상수
김도현	김유정	박광현	양광옥	이유희	정태국
김동립	김익주	박금숙	양승준	이일섭	정호술
김동석	김인기	박대웅	양승현	이정열	조국현
김동진	김일수	박봉자	오윤민	이종각	조두환
김동화	김재익	박상준	오재근	이춘근	조성자
김동훈	김정기	박서현	유재홍	이춘희	주영숙
김래성	김정녀	박선화	유창균	이한숙	지광기
김례숙	김정래	박시동	유현민	이효원	지승홍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천옥자	함영석	김기중	문지영	이교창	조정곤
최규학	허인자	김남국	박봉태	이기섭	주영
최금순	홍경호	김남길	박영옥	이병해	채남석
최길자	홍남표	김남인	박원	이수창	채수정
최돈철	홍덕표	김병선	박인숙	이옥태	최규형
최명길	홍완표	김병영	박충신	이용수	최근림
최명학	홍익표	김복순	방은상	이용탁	최돈옥
최문자	황근화	김삼진	백귀현	이원용	최돈자
최문철	황상화	김순덕	변재식	이중도	최문규
최병열	황한노	김순자	송무용	이참수	최범집
최삼영	황혜정	김인자	송재규	임남희	최성규
최상미	<초당동>	김재숙	신경선	장순옥	최승훈
최선미	고영국	김재옥	신재천	장용복	최신규
최수용	고종설	김정남	신재천	장우병	최원준
최승래	곽종옥	김정심	신준선	장주용	최재인
최종남	권봉자	김정옥	심국진	장태운	최정순
최종문	권영하	김지은	안일훈	장희정	최정옥
최종열	권영희	김지하	양금녀	전규집	최지연
최종운	권오기	김진만	엄동현	전남현	최충권
최준영	권오길	김진창	오순의	전이복	최철영
최해집	권오성	김진희	오용진	전인용	최태순
최향자	권용민	김홍규	오인숙	전재덕	최택규
큰사랑 요양원	권필자	나영만	유경희	정동철	최한순
하명숙	권혁용	문경숙	유환석	정의경	최형순
한성철	권현미	문성호	윤대현	정희준	최희정
함복녀	길재수	문제천	윤문석	조성민	한동형
함영만	김갑호	문종순	윤찬섭	조영순	한영환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한진섭	김규열	김용철	류기준	심재성	이정형
함명자	김기용	김윤기	문준식	심황출	이종만
허명자	김남대성	김윤기	문한숙	안 길	이종열
홍길원	김남수	김인호	박동훈	안희섭	이지영
홍성학	김남우	김재상	박미화	안희용	이철종
홍순영	김남진	김재오	박상훈	안희준	이하영
홍영표	김남태	김재학	박성길	안희창	이한우
황천수	김노옥	김정운	박영철	용순덕	이해숙
<포남1동>	김덕규	김정태	박제성	유명균	이형우
강덕환	김덕성	김종규	박종일	윤길일	이효승
강희만	김덕자	김종열	박희현	윤석동	임승규
고문석	김동완	김종욱	방문철	윤성순	장석민
고주성	김명두	김종현	백용수	윤종성	전동표
곽기조	김민철	김주열	변지성	이갑섭	전상운
권성표	김범재	김지현	서민주	이근호	전찬근
권영균	김병목	김지훈	서용숙	이기성	전학필
권영한	김병목	김진완	서우진	이남훈	정병국
권오준	김봉인	김진환	손명남	이동기	정보원
권오하	김상근	김창오	손재식	이범재	정분옥
권혁목	김상호	김학범	신경철	이상준	정상환
권혁원	김순길	김한옥	신성균	이상철	정연철
권혁정	김송간	김현기	심경섭	이선희	정응수
권혁진	김승기	김흥기	심명섭	이순남	정의평
권혁진	김승자	김희자	심상균	이순임	정재연
권화자	김영중	김희주	심성한	이옥분	정현모
김갑수	김용달	남순덕	심순석	이정식	조경현
김국현	김용수	노평승	심재석	이정자	조규성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조규정	최종욱	<포남2동>	김동현	김진문	박종수
조백현	최종윤	강대언	김만기	김진석	박종하
조병설	최종익	강동훈	김말자	김진웅	박준희
조성욱	최종태	강서연	김명옥	김진호	박홍동
조송현	최종해	강신만	김명자	김천수	백선엽
조영철	최준길	강환복	김복희	김태열	변남규
채희주	최철훈	계상진	김봉식	김학송	삼팔 종합목재
최광일	최춘식	계상진	김부년	김혁식	서국철
최근립	최황규	고석철	김부웅	김현기	서인철
최덕순	한사현	곽영봉	김선정	김형강	서태식
최돈상	한수호	권순길	김성태	김형수	서태완
최동정	한응용	권오범	김순경	김형태	석용균
최봉철	한현걸	권오연	김순애	김호영	성기주
최상자	함동경	권오윤	김순이	노애숙	손호대
최선중	함영호	권재창	김영준	노애자	송길복
최순란	함장식	권준혁	김원기	노애화	신경원
최완서	허영심	권현정	김은비	농산물품질 관리원 강릉 사무소	신남순
최용현	홍기성	김관홍	김일녀	박광업	신동원
최우길	홍기왕	김근희	김일수	박명희	신민수
최윤현	홍무일	김금중	김일영	박병술	신정호
최익한	홍성욱	김길년	김장호	박병희	심찬수
최일배	홍성욱	김남해	김재선	박상열	심천수
최정자	홍춘식	김남현	김재원	박순자	안기태
최종만	홍학표	김대래	김재형	박용수	안무웅
최종복	황광훈	김덕임	김주웅	박용철	안상영
최종석	황도순	김돈성	김중영	박용희	안정미
최종우	황태구	김동우	김지연	박재석	안혜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안홍택	이용욱	조규정	최중수	황창조	김남섭
엄관현	이우식	조근녀	최중호	황혜정	김남성
엄백현	이은준	조성웅	최중기	<홍제동>	김남욱
엄정현	이의진	조성훈	최지선	강성열	김남익
엄현욱	이재신	조영삼	최찬우	강순양	김남현
오경민	이정기	조종현	최하규	강연자	김달희
오병주	이정우	조진형	최해동	강준길	김동근
오병철	이정헌	주현아	최현순	강춘자	김동성
오한록	이정희	지문규	포남1주공 노인정	고석철	김동철
오희숙	이종학	진한겸	하태균	권기현	김동호
우동현	이충모	최경	한순영	권순민	김만식
우인성	이치훈	최경운	함귀호	권순태	김명기
윤동익	이태교	최권섭	함두호	권오벽	김명자
윤동주	이형재	최규정	함순옥	권오욱	김민호
윤택준	임선택	최길순	함영윤	권오중	김봉기
이건일	장석중	최돈석	함종옥	권은희	김성기
이계자	전규헌	최동건	함춘자	권혁근	김성수
이근삼	전동규	최숙	허집	권혁복	김세민
이금자	전만석	최순규	홍경호	권혁우	김숙기
이동재	전수창	최순자	홍도혁	권혁인	김승기
이명호	전인홍	최승용	홍동연	김광진	김양래
이병재	전찬길	최승태	홍성근	김금옥	김연일
이상억	정숙희	최재학	홍송부	김기용	김영기
이상욱	정엽이	최정순	홍종복	김기원	김영남
이상환	정의철	최정현	황대현	김기혁	김영자
이선희	정호민	최정희	황원진	김난익	김옥순
이연하	정효서	최종설	황일중	김남분	김용광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김응남	문용기	송병태	엄인선	이영애	정용길
김재선	문종근	송용근	오동택	이용남	정용익
김재성	민경원	송종헌	오정식	이용미	정의남
김재현	민경환	신선호	원정남	이용민	정재수
김전휘	박기덕	신세경	유금순	이용여	정창균
김정해	박대성	신영하	유택환	이용호	정호윤
김종희	박명구	신용순	윤경중	이용환	조갑목
김준영	박상명	신재인	윤병환	이원근	조규순
김준환	박상명	신재청	윤일남	이이호	조병래
김지영	박성규	심경자	이규상	이임순	조성문
김진국	박성열	심용자	이규진	이장의	조성민
김진수	박수연	심원자	이규형	이재옥	조하현
김찬욱	박용일	심진섭	이근호	이종건	조환근
김태수	박인재	안경현	이기환	이주언	최경희
김태영	박재용	안석남	이대근	이진현	최규복
김태현	박종근	안창숙	이동섭	이창옥	최규식
김하식	박진균	양채남	이목우	이혜수	최규인
김학목	방석춘	어달훈	이상길	이황	최규필
김형근	백길수	어재린	이상미	임인순	최복수
김흥기	서동원	엄 성	이선민	임학청	최봉규
나병숙	선복란	엄계호	이선우	임후선	최선필
남궁용권	선복자	엄기일	이성영	전강동	최옥길
남기복	선재권	엄기철	이승연	전명규	최옥순
남상원	손정숙	엄대용	이실환	전상부	최완순
남혜선	손정순	엄석호	이영관	전영미	최용자
노일석	손호은	엄성호	이영길	정석주	최용자
류명숙	송대식	엄옥자	이영숙	정연학	최윤선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최은주	황용광	김명호	박세연	이석구	최동윤
최정란	황위남	김병덕	박세재	이석부	최병규
최정자	황정구	김분선	박용대	이석울	최상만
최정자	황청남	김상섭	박인철	이석진	최선대
최정철	<사천면>	김선남	박정임	이영기	최선중
최종은	강관치	김성용	박정자	이완수	최선철
최종호	강달원	김영균	박태규	이정수	최승규
최중규	강명일	김영남	박현식	이종복	최시길
최춘집	강은원	김영복	선주교	이종식	최영자
최충희	강태성	김영훈	손재식	이향용	최완순
최태길	강태혁	김우영	송영운	임덕순	최우식
최태영	고두환	김재만	심만석	임병옥	최우영
최해자	고상호	김정남	심상철	임학재	최월선
최혁규	곽기근	김종남	심연수	장동규	최재희
한기승	곽기덕	김종훈	엄광용	장선미	최종걸
함동수	곽기백	김진근	오정희	장종규	최종민
함영로	곽기철	김진근	용기원	정경남	최종일
함영록	권영선	김진달	유병렬	정호자	최종필
함영한	권오란	김진섭	유종복	조영울	최찬집
함옥련	권오예	김진우	윤기	채국만	최춘옥
함우빈	권오황	김철성	윤삼현	최경진	최태규
함우식	권혁집	김태기	윤정현	최계순	최향자
함홍식	권혁대	김학남	윤희병	최규린	최현순
허월자	김기준	김홍정	이상남	최금술	최형집
홍경숙	김남관	나옥자	이상민	최남순	최화길
홍기서	김남규	박봉진	이상원	최돈성	최환상
황봉창	김남형	박성규	이서윤	최돈하	허부희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허영용	윤오섭	한철중	김덕수	박복덕	신천덕
허종희	이관동	황상록	김도영	박애분	심남섭
<왕산면>	이규훈	<연곡면>	김동선	박의선	심병화
박홍동	이금선	강경길	김문기	박제동	심영화
손택열	이금순	강래봉	김미선	박종남	안대근
고광길	이명근	강순덕	김병태	박창호	안재성
김경래	이명용	강옥병	김상용	박태원	엄학중
김남원	이승래	강종근외56	김수원	박태환	엄현용
김동기	이재봉	강창근	김숙녀	박향순	우정희
김동옥	이정성	강태권	김신미	박현선	윤석빈
김동철	이정식	강태진	김영복	방수민	이규석
김봉기	이제영	강호관	김옥수	방훈길	이규용
김숙희	이형용	권순호	김용기	백범일	이도경
김영두	장재천	권순호	김재호	백송기	이도경
김영식	장주복	권영래	김정기	백정용	이두석
김응래	전두일	권인자	김종청	삼산2리 노인회	이루용
김형규	전우식	김경국	김진철	서길순	이미화
민병표	전제관	김경진	김천일	서명자	이민제
박기종	전종구	김계순	남봉길	선태영	이상수
박만수	전태길	김근희	남오현	성불사	이석재
박병용	조규달	김금자	노경만	성불사	이숙자
박세민	최돈태	김기자	노유진	소금강 장천마을 삼산1리 마을회	이순희
박영제	최완중	김기항	문석문	손병진	이은수
박용진	최은규	김남각	문세림	손병철	이은숙
박주석	최인철	김남이	문세정	손영도	이정대
박홍동	최찬규	김남정	문영진	손은정	이철우
손택열	최춘화	김남춘	민태준	송영희	이춘선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이호석	최상호	강원장	김동익	김영선	김정식
이효범	최서진	강정준	김동학	김영수	김종군
임창규	최선규	강혜지	김동형	김영숙	김종분
전금자	최세영	강희춘	김동희	김영익	김준화
전명찬	최승자	고문태	김등열	김영자	김진무
전부옥	최영희	고언출	김말례	김영희	김진삼
전순택	최장순	고옥희	김망선	김옥기	김진선
전용택	최장순	권복순	김명준	김옥남	김진용
전창병	최재희	권운영	김미혜	김옥자	김창선
전판선	최종대	권혁돈	김박	김용기	김창용
정수화	최종옥	권혁매	김병기	김용수	김천일
정우교	최현순	기영숙	김병남	김용순	김청일
정춘량	최홍길	길경숙	김복철	김용인	김청자
정호이	홍고송	김민	김삼정	김용환	김춘실
조기현	홍근표	김경옥	김상국	김운학	김태동
조병희	홍금성	김광석	김상기	김원식	김태영
조영숙	홍기태	김귀자	김상학	김월자	김태원
좌명섭	홍순철	김근부	김선섭	김윤기	김해기
주성원	홍영일	김근식	김성기	김윤수	김희자
주현원	홍원대	김기철	김수진	김인숙	남인동
진후식	홍준표	김남순	김숙자	김인재	동명사
최계숙	홍창표	김남식	김순봉	김일곤	마을회관
최명규	홍희숙	김남일	김순진	김재곤	문종한
최명영	<주문진읍>	김남진	김양식	김재용	박광진
최봉석	강건선	김대일	김연자	김정배	박기호
최상연	강경식	김대현	김연화	김정성	박기환
최상익	강승수	김도선	김연희	김정순	박덕준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박동훈	선금용	오춘옥	이동원	이은순	전명희
박문구	선주윤	우재식	이명희	이재모	전영찬
박문규	설복득	유운순	이민남	이재준	정 권
박복문	설증락	유일만	이병용	이재홍	정경신
박상준	손순란	유일호	이분옥	이종엽	정귀자
박성도	손영수	유하은	이상균	이종철	정금순
박수남	송평자	유현중	이상돈	이종춘	정만숙
박순녀	신대호	윤옥희	이상만	이진호	정명시
박승국	신승대	윤일연	이상연	이찬우	정명희
박연동	신승래	윤정순	이상옥	이한근	정상영
박영선	신재열	이경수	이상필	이한순	정연옥
박영희	심경수	이광삼	이성재	이희숙	정연우
박옥남	심경자	이광월	이성화	임경순	정은혜
박재봉	심민섭	이규길	이송옥	임광미	정의교
박정용	심민자	이금순	이순려	임대수	정인식
박정웅	심상록	이금자	이순옥	임두옥	정주환
박정인	심상백	이금화	이승현	임병석	정진웅
박정인	심실광	이기범	이영국	임병운	정창교
박준식	안용	이나운	이영순	임춘식	정창호
박중귀	안정자	이남형	이영실	임화자	정태일
박화춘	안춘월	이규길	이영희	장경우	정혁태
박화춘	양경희	이금순	이옥란	장계복	정후기
방태진	엄동근	이금자	이옥자	장영진	조규종
배수만	연규대	이금화	이옥현	장재근	조금자
백종수	엄복만	이기범	이용태	장춘례	조기완
서명균	오만수	이나운	이용호	장호신	조병선
서원천	오명숙	이남형	이원섭	전남숙	조성근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조순득	최영란	허정옥	김경태	김을기	박기창
조창문	최영수	홍선기	김관기	김인숙	박남수
조학철	최영심	홍완효	김근성	김재범	박동희
조현옥	최오길	홍종수	김기녀	김재영	박명선
조황현	최용규	홍형식	김기만	김정래	박민석
주순영	최인영	홍호철	김난순	김정수	박영복
지상규	최정길	황순자	김남국	김정숙	박영복
진영식	최정길	희주영	김동문	김정아	박영승
차신하	최정자	<강릉시청>	김동율	김정필	박용성
채홍길	최종채	강광구	김명희	김정화	박용인
천성길	최종현	강릉자비 복지원	김문란	김주란	박은정
최남두	최주영	강신국	김미성	김지은	박재균
최돈근	최창수	강영미	김병삼	김진대	박종민
최돈장	최춘득	강정희	김복순	김춘희	박종운
최문영	최춘지	강태복	김석래	김현근	박준형
최미선	최팔만	강희경	김선미	김혁신	박창실
최복수	최학근	고민성	김선희	김현	방만균
최복식	최학근	고민성	김소현	김현정	배광식
최부영	최학수	구민성	김수련	김현주	배항규
최부영	최훈길	권기석	김신옥	김현진	변동호
최상정	하성용	권미라	김애리	김형래	서용석
최선배	한광현	권미정	김영미	김희상	서원각
최선의	한지호	권용순	김오남	김홍술	선재희
최선자	함대호	권혁철	김용남	문대일	손동오
최선평	함영남	김경	김우석	박경관	손주훈
최선화	함영하	김경임	김원길	박경란	손호현
최신만	함재만	김경준	김은희	박금자	송영국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신세승	이기영	임승빈	정호희	최세향	황문환
신은령	이기원	임용수	조금현	최승길	
신재병	이석종	임현주	조숙환	최승찬	
신형철	이선하	장명환	조숙환	최승혁	
심광섭	이성규	장미선	조안나	최승현	
심교언	이성규	장분성	조연정	최아름	
심규만	이승범	장아영	조영미	최원선	
심미나	이승희	장영아	조옥현	최일순	
심미나	이연성	장영아	조태란	최정희	
심상복	이영숙	전미옥	주재옥	최종범	
심진섭	이용태	전미현	주정녀	최종서	
심호연	이원근	전석우	주정녀	최종성	
안도화	이유리	전소희	주정립	최중근	
안효윤	이은숙	전인우	주홍	최지영	
염돈민	이재원	전찬복	진선미	최해규	
오은희	이정경	전홍덕	차주일	최향여	
우은미	이정경	전희진	천나영	한승률	
원경미	이정훈	정경자	천혜연	한인숙	
원제훈	이종경	정구중	최경길	함나운	
유태수	이종익	정내경	최근숙	홍문기	
유수정	이종학	정명숙	최두순	홍삼녀	
유영애	이종헌	정문교	최미이	홍선옥	
윤미경	이주원	정미경	최범순	홍성복	
윤용녀	이진규	정영란	최보영	황경숙	
윤준연	이진원	정영미	최상근	황계진	
이강봉	이충복	정의용	최선녀	황남규	
이건령	이현정	정재교	최성일	황대남	

<부록> 9.

2017 강릉단오제

경품추첨행사

2017 강릉단오제 경품 기탁 현황

구분	단체명	상품명	수량
1	현대자동차	아반떼MD	1
2	롯데주류	전통시장상품권	300
3	롯데주류	55인치 곡선형 TV	1
4	롯데주류	55인치 벽걸이 TV	1
5	롯데주류	드럼세탁기	1
6	롯데주류	고급형 세탁기	2
7	롯데주류	공기청정기	2
8	한국은행 강릉본부	선풍기	4
9	경포아쿠아리움	무료입장권	20
10	경포아쿠아리움	50%할인권	20
11	비룡건설광고	30인치 TV	1
12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전기밥솥	1
13	대한민국 특수유공자회 강릉지회	자전거	2
14	주형농산	공기청정기	1
15	강릉시번영회	자전거	1
16	예향한정식	식사권	3
17	한송정다도회	선풍기	1
18	특영다레원	차세트	2
19	라인광고	자전거	1
20	임영문화재보호회	농촌사랑상품권	2
21	테라로사	커피세트	3
22	탐항공여행사	서클레이터 선풍기	1
23	샘디자인	매직오븐기	1
			372

2017 강릉단오제 경품 당첨자 명단

구분	단체명	상품명	번호	수령자
1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전기밥솥	4932	정영순
2	한송정다도회	선풍기	5752	이금옥
3	특영다레원, 아쿠아리움	차세트, 무료입장권5매, 50%할인권 5매	4722	정원진
4	롯데주류	전통시장상품권(30)	2463	천순남
5	라인광고	자전거	1865	이춘희
6	예향한정식	식사권	1694	이장훈
7	테라로사	커피세트	2783	박문자
8	임영문화재보호회	농촌사랑상품권	2607	남성준
9	롯데주류	전통시장상품권(30)	5369	서경애
10	롯데주류	전통시장 상품권 30	1974	서석우
11	예향한정식	식사권	2059	손영화
12	주형농산	공기청정기	1388	최정순
13	농촌사랑상품권	농촌사랑상품권	5468	이정희
14	롯데주류	전통시장 상품권 30	1250	권형란
15	경포아쿠아리움	무료입장권5매, 50%할인권 5매	5557	최복철
16	롯데주류	공기청정기	4497	설희수
17	특영다레원, 아쿠아리움	차세트, 무료입장권5매, 50%할인권 5매	1406	김숙희
18	한국은행 강릉본부	선풍기	4269	최선미

구분	단 체 명	상 품 명	번호	수령자
19	강릉시번영회	자전거	5091	정선옥
20	롯데주류	공기청정기	5681	김남덕
21	한국은행 강릉본부	선풍기	5	김상홍
25	테라로사, 경포아쿠아리움	커피세트, 무료입장권5매, 50%할인권 5매	5632	정재은
26	롯데주류	전통시장 상품권 30	32	김옥선
27	예향한정식	식사권	5776	이성호
22	롯데주류	전통시장 상품권 20	3530	최선옥
23	한국은행 강릉본부	선풍기	5451	손명숙
24	특수임무유공자회	자전거	3651	권영철
28	비룡건설	32인치티비	1333	이경자
29	특수임무유공자회	자전거	4458	선복란
30	한국은행 강릉본부	선풍기	2497	박금자
31	샘디자인	매직오븐기	3657	김순옥
32	탐항공여행사	서클레이터 선풍기	939	이금선
33	테라로사	커피세트	164	최관식
34	롯데주류	고급형 세탁기	3720	최규연
35	롯데주류	전통시장 상품권 100만원	2290	김연화
36	롯데주류	고급형 세탁기, 전통시장30	39	최진자
37	롯데주류	최신형 드럼세탁기	2889	강옥희
38	롯데주류	55인치 벽걸이TV	919	권오경
39	롯데주류	55인치 곡선형TV	5303	김옥선
40	현대자동차	아반떼 엠디	3315	우성대